

남이 하고 하지 않는 것 보기
금주일언 에 힘쓰지 말고 항상 스스로
 내 몸을 살피어 비르고 비르지 않음을 일라
 (법규경·화양폭21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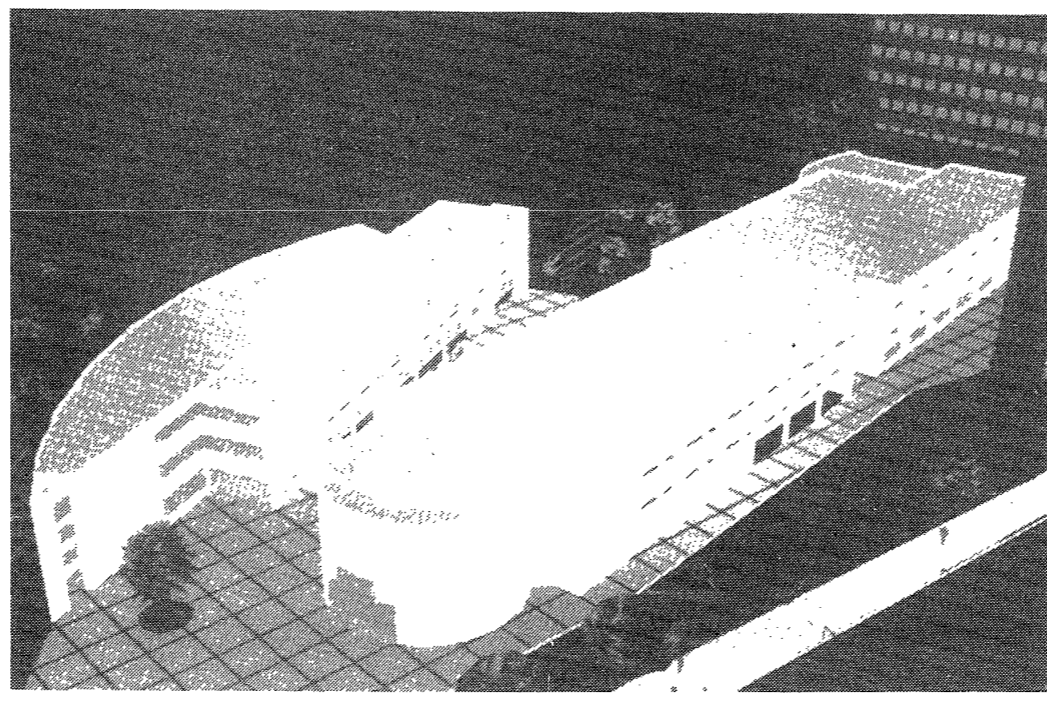
東大新聞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237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23770-2657)

학술문화관기공...총 5천4백여평·96년 완공예정 만성적공간문제해결 - 재원마련 방안 강구해야

관리처(처장=강창순)는 동국학술문화관 건립 기공식을 오는 17일 11시30분에 개최한다.
 학술문화관 건립공사는 추진계획이 92년 처음 발표된 후, 재원마련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수차례 연기되어 온 바 있으나 이번 착공으로 인해 오는 96년 2월에 완공된다. 공사의 최종허가접수는 작년 12월 29일에 마친 상태였으며 업자는 주식회사 금강으로 선정되었다.
 동국학술문화관은 구동국별관부지위에 연건평 5천4백여평, 지상3층 지하2층의 규모로 지어지며 학술동, 연구동, 문화동으로 나뉘어 8개대학원, 예술대, 인문계열 1개단과 대등을 수용하게 된다. 그의 3천불이 봉안될 법당, 전시관, 학술세미나장, 중극장도 들어섬으로서 외부대관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한편 학술문화관 소요예산이 약 1백50억원이 들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만큼 학교당국도 그에 따른 재원 확보마련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개교1백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술문화관건립은 기념사업 후원회(회장=황영수)발

족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기념사업본부(본부장=박동기)는 학내제주제, 동문, 불교계등을 대상으로 기금마련을 위한 홍보에 들어갔으며 불상봉안분과 위원회를 통해 법당안에 3천 불상봉안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11월에 미술학과 교수 19명은 동국학술문화관 건축기금모금을 위한 작품전시회 '동약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교육대학원 미술전공 졸업생들은 자신들의 작품 18점을 기념사업본부에 기탁한 바 있다.
 한편 동국학술문화관 건립에 따른 기간물공사가 지상2층 6백30평 규모로 명진관 옆 테니스장코트위치에 약 2개월에 걸쳐 지난 2월말 완공되었다.
 이에따라 현재 가건물에는 동국별관을 사용하던 미술학과 학생들의 실습공간이 들어섰다.
 관리처의 관계자는 "동국학술문화관 건립으로인해 그동안 만성적인 공간부족현상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동국의 위상을 높여줄 절실한 방안이다"라고 밝혔다.



◇동국학술문화관이 오는 17일 착공된다. 서울캠퍼스에 들어서는 금세기 마지막 건축물이며 학술문화관은 만성적인 공간부족 현상을 일정정도 해소해 줄것으로 기대되나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진은 96년에 완공될 학술문화관의 조감도.

직원노조 단체교섭 본격 돌입 총장선출시 학내주체 참여 요구

직원노조(위원장=장운·학생과)는 학교측과의 1차 단체교섭을 오는 17일 오후 2시 교무위원회실에서 갖는다.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사항은 임금 보수체제 개편으로 교섭방식에 있어서 평균 인상률을 학교측에서 선제시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며 총인상률에 따라 수당 및 상여금도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안은 △신규직원채용 3월중 시행 요구 △점진적 개편에 관한 사항등 징계관련사항 재정비 △법안내 조직의 인사교류에 대한 원칙 설정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규정의 재정 및 개폐시 조항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명시 △복지기금관리 △조직의 개편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안(연구처·시설과인실, 전자계산소개편, 대화평가, 임시, 행정전산화등을 위한 TASKFOR-CE운영) △연수제도의 강화 및 해외연수의 확대실시등이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총장추보선출제도의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11월에 있을 총장선거에 대비해 노조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직원노조측은 총장선출제도의 마련과 참여방안에 있어서 참여 주체를 학내 구성원의 공식적 대표단체

인 노조, 교수회, 총학생회를 근거로 동창회 대학원학생회등의 참여와 함께 제도의 공식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교섭은 서울·경주 노조위원장, 총장, 부총장등 11명의 양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단과대 대의원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11~15일=선거일공고 △16~17일=후보자등록마감 △18~21일=후보자 공보부착 △31일=1차유세 △4월 4일=2차유세 △6~7일=투표
녹원스님 초청법회
 정각원(원장=한보광·선학)은 오는 22일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 '오복원 이사장 초청법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총대의회 부의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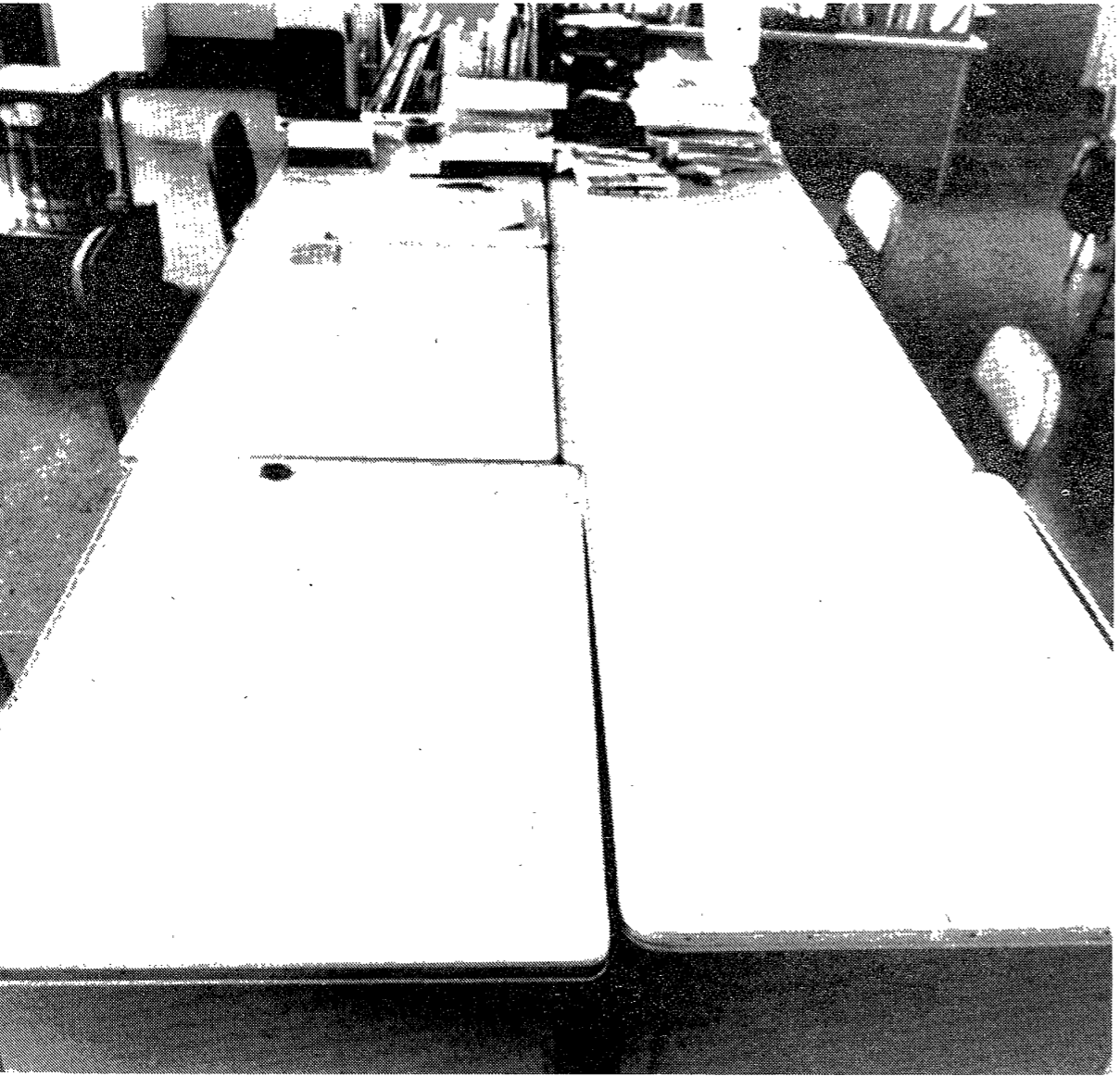
단과대 대의원회 선거 오는 22·23 양일간 투표

제26대 총대의회(의장=한장섭·독문4)는 지난 93년도에 실시된 단과대 대의원선거에 관한 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대의원이 공석인 단과대는 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사회과학대등 4곳으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은 불대대 총대대의원장 박종현(농4), 문과대는 예대 대의원장인 신현주(연영4), 이과대는 공대 대의원장 최두성(전기3), 사과대는 법대 대의원장인 진학진(법4)군등이다.
 단과대 대의원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11~15일=선거일공고 △16~17일=후보자등록마감 △18~21일=후보자 공보부착 △22~23일=투표일 △24일=당선자 확정공고.
 이번 선거에서는 예년과 달리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투표자가 직접 후보자의 이름 적어내는 일명 '주관식 선거'방식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총대의회 부의장이

재용(영외4)군은 "도장만 찍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정도는 직접 기입하는 성의가 있어야 한다"며 "선거문화 재조명사업과 함께 올바른 선거를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의원추보자 자격시비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경주대는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대의원선거여부를 결정짓게되며 그 결과를 놓고 총대 중앙위에서 재논의를 거치게 된다.
 또한 전학대회체제로 인해 대의원회자체가 존재하지않는 야간강좌는 현재 학생회장이 대의원회격인 중앙위원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어 곧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기위한 선거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알림]
 제1145호가 본사 사정상 오는 3월 30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보리수 오안(五眼)

금강경 일체동관분(一體同觀分)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진지한 문답이 이어지고 있다.
 그 내용인 즉 "수보리아, 네 생각에는 여래에게 육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에게 육안이 있습니다"라는 양태로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데 육안의 자리에는 천안→혜안→법안→불안의 순서를 밝고 있다.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다섯가지로 중중구조(重層構造)를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육안(肉眼)은 미혹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요, 천안(天眼)은 일체중생에 대하여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혜안(慧眼)은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않는 것이고, 법안(法眼)은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불안(佛眼)은 미진한 의혹까지도 떨쳐버리고 원만하게 비추는 것이다.
 이 오안설은 결국 심안(心眼)을 여러 유형으로 세분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마음의 눈이 다섯가지 차원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주체적인 시각에 따라 보이는 세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빈자리를 채워줄 여러분을 찾습니다

대학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대신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의식있는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② 응시자격: 1학년 남·여재학생
 ③ 모집분야: 일반 및 만화·사진기자
 ④ 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⑤ 원서접수: 서울 3월17일(목) 오후4시까지 경주 3월17일(목) 오후 4시까지
 ⑥ 시험일자: 서울 3월17일(목) 오후5시 경주 3월17일(목) 오후5시
 ⑦ 시험과목: 1차 필기-상식·논술(만화·사진지원자는 실기) 2차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 시험장소: 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원효관 A301(경주캠퍼스)

*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일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 260-3491-2 (0561)770-2057

동아리를 찾는 새내기 여러분께 화려한 걸모습 보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곳을

3월초의 풋풋추위로 동아리 새내기들이 발산하는 신선한 봄의 느낌을 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동아리연합회가 있는 학생회관에서도 동아리를 찾아 방황하는 많은 새내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학생회관은 동아리홍보물들과 더불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 동아리보다는 여러 동아리를 찾아 다니고 나서 결정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내가 속한 동아리도 매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동아리 모습을 보면 동아리의 걸 조건이나 인상을 보고 들어온 새내기들은 도중에 동아리 생활을 그만두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물론 걸인상을 본 새내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아리 생활에서 활발한 활동이 그들을 묶기도 하고 그 속에서 사귀게 된 동아리원들간의 정이 신입생을 동아리에 남게 만듭니다. 실제로 동아리 생활의 핵심이고 중요한 것은 다양하고 깊은 동아리원들간의 인간관계일 것

입니다. 동아리를 찾는 새내기 여러분이 동아리 선택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즉, '여기가 없다', '동아리방이 작다', '예비역이 많다', '방이 더럽다'같은 것이 동아리 선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고 자신이 찾아간 동아리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지가 동아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쩌면 기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활동영역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동아리는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동아리 생활을 모든 조건적 상황을 극복하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리의 동아리원들은 자신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이런 동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으로 선택하십시오.

이영석 (이과대 물리학과)

학번과 연배의 벽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학이라는 사회속에서 학번과 연배의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이다. 필자도 주위에서 나이가 적거나 같은 선배들과의 관계때문에 혹은 동기를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의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학에서는 학번이 최고다', '선배는 누가 뭐래도 선배다'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태도로 결코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이런 식의 태도는 학번과 연배의 문제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대학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1, 2년 할리들어왔다고 해서 후배를 앞에서 여쭙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보다 늦게 대학에 들어온 후배의 경우에도 자신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나이라는 문제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것이 대학 생활을 후회없이 보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서희원 (문과대 국문과)

스스로 깨우치는 곳

새내기들은 고등학교때의 막연한 환상으로 대학에 들어온 지금, 현실화하기 위해 환상의 실체로 동아리를 찾게 된다. 대학생활의 꿈에 부푼 새내기들은 동아리에 대해 저마다 생각할 것이고 선배들에게 물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적성, 취미, 성격, 능력, 선배들의 말을 참고해 동아리를 선택할 것이다. 온방골에는 50여개의 동아리들이 저마다의 성과물들과 홍보를 통해 새기기를 유혹한다. 대부분 선배들은 동아리와의 대외 상호간의 인간적 강화와 단체 활동을 통한 조직사회의 적응능력 함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대학생활이 지난 12년간의 초·중·고교 교육처럼 선배님이나 부모님의 지도아래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태도에서 스스로 깨쳐 나가야 하는 곳임을 깨닫고 있다. 자율과 낭만 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책임. 대학에 선배들로 부터 들은 가장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책 읽을 자기위해 이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가는 대학생활을 지내기 위해 또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학 동아리생활을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지훈 (상경대 관광경영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대학생활

매년 이맘때면 교정에서 새내기 모집을 위한 동아리 가두행진이 줄을 잇는다. 90학년도 처음 학교에 발을 디뎠을 때 나는 나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과 삶의 공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차라리 막막했다. 항상 수동적인 생활을 짊어졌던 나에게 수업의 시간을 보람으로 채워줄 곳이라고 동아리 활동밖에 없었다. 대학사회에서 동아리 문화는 단순한 교양의 차원을 넘어 인간적인 만남의 장이 여러사람들과 만나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공동체의 의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와 아울러 대학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동아리 활동은 자신의 대학생활을 가장 멋진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장 먼저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림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그림에 가입해 지금은 하늘·땅의 사람들에서의 동아리 활동이 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 하늘·땅의 사람들 새내기 모집 대자보를 쓰고 있다.

이재욱 (인문대 미술학과)

모니터요원 모집!

한 학기동안 동대신문을 모니터할 모니터요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오는 18일까지 동대신문사로 연락바랍니다. 여문매체부

오늘을 사는 동국인 - 김주현 동문



삼 진실, 희망의 노래. 포항지역 노래공방 '소리꽃'의 사무국장 김주현(중문 92졸) 동문. 직함은 사무국장이지만 연주, 노래, 창작을 겸하는 1인 다역의 실력자. 재학시절 중앙노래방 오셀의 초창기(2기) 멤버였던 그는 졸업후 이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문화운동과 소리꽃의 시구가 되었다. 소리꽃은 회사원, 대학생, 주부등 구성이 다양하고 8명의 젊은 시구자만 주2회 연습으로 지역노동자들에게 노래공연, 강습등을 통하여 마틴광에 단비를 뿌리듯 뜻깊은 일을 하는 단체이다. 92년도 창립때부터 노래를 통한 노동운동을 해온 김동문은 "이직 사회인으로 텃밭이 자리하지 않은 부족한 동문인데 이런 자리는 너무 과분해요. 졸업한 동문이라기 보다 대학7년생의 기분으로 삶을 배우는 중인데....."라며 연신 미안해 한다. 그런 그에게 '선생님'이라 부르길 서슴치 않는 이들은 소주잔과 뽕떡가락에 잠든 퇴근길 노동자들이다. 어릴적 앓은 소아마비로 쪼그라든 목발에 겨드랑이 밑이 헤진 뿔을 애써 감추며 그는 "한반도 내 힘으로 노동해 보지 않은 그런 일로 노동자의 애환을 감싸는 노래를 부른다는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여간이 된다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노래를 하는 장애인 운동가가 되게끔 꿈이요"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삶을 살아가는 김주현 동문은 불꽃이 되어 노동자들이 가슴에 희망으로 날아갈 노래를 부르는 오늘을 사는 동국인이다. (김덕실 기자)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등록금 투쟁 공유의 장 아쉬워

운동 등록금투쟁에 관한 문제가 동아리에 불바람처럼 일어나고 있다. 9일날 발간된 동대신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합의서 조인식, 등록금총환파랑 개회, 동국발전위원회 등에서 드러나듯이 극히 상층위주의 진행상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점을 사실에서 정확히 다루고 있다. 학교당국의 기만적 작태와 총학생회의 수수방관적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얘기가, 이미 합의된 등록금문제 그러나 과연 그것을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것인가는 남는 문제라 할 것이다. 이후에는 한층현에서 얘기하는 GNP 4%로 교육재정확보부담과 자주적 총장선거가 94년에 학자투의 중심으로 설 것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서 총학생회가 얘기하는 화원대개혁운동의 총화표를 기사화하고 일반화하는 함께 이 문제를 공유하는 작업이 반드시 다음호에는 실렸으면 하는 자그마한 바람을 마지막으로 보낸다.

유병문 (불교대 불교학과·본사 모니터)

경주판 신설 '녹야원' 공간문제 의문해소

지나호 동대신문(1143호)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기사는 경주판 7면의 새로 만들어진 칼럼인 '녹야원'이었다. 각종 집회, 행사는 물론이고 공간감각에 자유로이 앉아 이야기 나누며 시간 보내는 그 녹야원이 칼럼의 이름이 된 것이 특이하다. 또한 이 녹야원의 내용이 같은 면에 실린 기획기사의 상통하는 주제여서 조금이나마 학우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 주었다. 학생회관 증축에 따른 공간의 합리적 활용문제, 관중석 없는 노천강당 완공후에 우려되는 문제, 원효관 1층 행정기관의 재배치에 관한 조속한 해결, 그리고 예전과 다를바 없는 가건물 형태의 미술학과 실습실 건립.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은 역시 이기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학교당국과 학생자치기구간의 이 문제들이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혜원 (인문대 철학과·본사 모니터)

조대 민호

이백의 시

이훈남 (교과대학원 미술전공)

작가약력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경기도전 특선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선 서예대전 특선 현재 한국미술협회회원



(개교 1백주년기념 사업본부 기증작품)

동/문/칼/럼

3월,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봄과 함께 모든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큰 아이의 유치원 준비를 도우며 생각해 본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배워왔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얼마전 읽었던 윤구병 교수의 글을 떠올려 본다. 학기 초마다 철학과 '인입생들'에게 '호피 인디언 부족'이야기를 잊지 않는다는 윤구수, 대체 우리가 평소 잘 들어 보지도 못한 호피 인디언 부족의 이야기란 어떤 것일까? 이야기는 이러하다.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정복하고 난 뒤 그들을 미국식으로 길들이기 위해 미국식의 가치관을 심는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윽고 호피 인디언 부족의 아이들이 시험을 치를 때가 되었다. 시험을 치르기에 앞서 미국인 교사는 학생들에게 '원구를 답을 보려고도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호피 인디언족의 아이들은 서로 우

호피 인디언 이야기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르르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사이좋게 답안지를 써 내었다. 그후 교사는 갖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혼내기도 달래기도 하였지만 매년 시험때마다 아이들은 변함이 없었다. 지쳐버린 미국인 교사가 왜 부정행위를 계속하는지 물자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어려움에 서로 의논해서 도우라 하였다. 시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서로 돕는 것이"라고 호피 인디언족의 이 이야기는 깊은 뱀을 알고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에 꼭 필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경쟁위주의 교육만을 반복하고 있는 가슴아픈 우리의 교육,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 이기는 자만이 우월한 위치에서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왔다. 이같은 병정현상 앞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서로 돕는

윤원자 (주부·연고 85층)

목격골

축하합니다.

- 사회화과일동
- 호상이, 생일 축하한다. - 사회 92
- 봉진이의 소집해제를 축하하며 - 시토반일동
- 완배 선배님, 균희 선배님 복학을 축하드립니다. - 92왕 이쁜 중아가
- 3월18일은 지리교육과의 독보적인 존재 (92) 윤혜진 여사의 귀뻘 날아갑니다. 마니 마니 축하해 주시요. - 동기 새끼뽕어썸
- 여학우들이여 축하! White day - K-K-C
- 동두천의 자랑 풍곡대의 자랑 산림자원과 우진하 농업생물학과 교재회의 인학을 늦게나마 크게 축하한다. - 동두천 89학번 선배가
- 알립니다
- 작지만 가족같은 선배가 있는 이곳에서 귀여운 대구 영고 후배님들을 찾습니다. - 철학과 2년 박동호
- 불국정토 구원에 앞장선 94학번의 참신한 佛子님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정토구원에 앞장섭시다! - 불교학생회 소모임
- 영철아! 늦었지만 축하한다. 이 먼곳 서울에서 - 潮
- 성형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정외 92
- '살집이저지 쯤민 선배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94무역 새내기들
- 장원아 생일 무지무지 축하해. - 독문과 H-J
- 영어영문과(아)의 교수 종근 땅의 생일을 진심은 아니지만 축하합니다. - 영문과 94학번 일동
- 한의대 극단 "애오라지"의 신입생 환영공연을 축하합니다. - 참신한 44들이 서울에서
- 박정민 언니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해. - 진흥-천우-영석
- (民美) 창간 준비호 발간을 축하하며, 아울러 신입회원들의 입소를 축하합니다. 기대하십시오. 94년 민·미·연을! - 민중미학연구소
- 동분회장님께 한학기 어려운 상황을 이만큼 울려놓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고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 89. 93
- '성진아' 교직 축하해. - Jen
- 法92 박산희 學友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모쪼록 성년(년20세)을 맞이하여 더욱 더 여드름 관리에 신경쓰길 바랍니다. - 法 92일동
- 지혜아! 생일 축하한다. - 정외 92
- 정희아 합격 축하해. - 용삼
- 동국대에 입학하신 석관과 학우를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 동문회장
- 3월16일 장동현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동/악/광/장

은방골

축하합니다.

- 3월16일 경복 검도회장이 대학부 3위에 입상한 동대검도부 金植 회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Sun
- 선희아! 입학 축하한다. 현미도. - 삼들이
- 3월9일은 일본과 예쁜이 해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모두 다시한번 축하해주세요. - K-S-H
- 94학번 한울회 새내기 여러분, 입단하신 걸 축하하며 3월21일에 만나요. - 한울회 10기 집행부일동
- 3월20일은 사랑하는 경복누나 생일이예요. 은방골 식구 모두 축하해주세요. - ?
- 3월18일은 저희 친구 마음자의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 불대 학생회
- 15일은 동국연극회 제8회 신입생환영공연 "어두워질 때까지"를 1시, 5시에 공연하는 날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동국연극회
- 3월23일 인문대 출범식 많이많이 봐주세요. - 대형형 and 김료들
- 동국인 여러분, 정보산업 어간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많은 격려바라며 사랑으로 지켜봐주세요. - 정·산(산) 해경
- 그리고...
- 무쇠나팔 신입생 5기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가열차게 투쟁합니다. 후정! - 무쇠나팔 일동
- 경희아! 영미야! 지현아! 석의아! 그리고 집장님, 우리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힘내주세요. - 姝林 화이팅!
- 산악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 한발녀
- 새학기가 되었는데 얼굴 한번 봐야겠지? 날잡아 기동부리 뽕지구. - 현국향우회 회장
- 3월16일은 저희 친구 마음자의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 Truth
- 경영학과 성전동 조직에 새로운 일원이 된 수정아와 현숙이를 환영합니다. - 조직의 Boss
- 삼순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삼순이계의 첫발을 위하여. - 투덜이
- 3월26일은 우리과 귀염둥이 김환이의 생일이예요. 김환이를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서 축하해요. - 법 (0)2년 김중건
- 김명표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 김명표
- 제112학군단 동기, 후배여러분 승급 및 입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포항 용광로
- 알립니다.
- 불교문화대학 사무실이 원효관

축하합니다.

- 3월16일 경복 검도회장이 대학부 3위에 입상한 동대검도부 金植 회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Sun
- 선희아! 입학 축하한다. 현미도. - 삼들이
- 3월9일은 일본과 예쁜이 해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모두 다시한번 축하해주세요. - K-S-H
- 94학번 한울회 새내기 여러분, 입단하신 걸 축하하며 3월21일에 만나요. - 한울회 10기 집행부일동
- 3월20일은 사랑하는 경복누나 생일이예요. 은방골 식구 모두 축하해주세요. - ?

현행 헌법은 제22조 제2항에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외부세력 즉, 공권력이나 설립자들의 제약이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 대학 본연의 기능인 연구와 교육을 자주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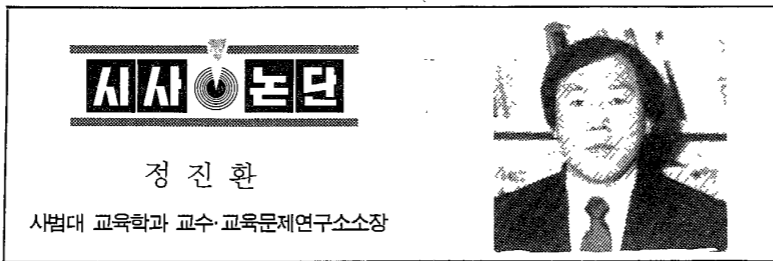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 몇몇 사립대학들이 추천 입학제 또는 특별전형등을 통한 무시험 입학 제도를 도입했다는 발표에 대해 교육부측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위법한 발상이라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단적으로 말해서, 현행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성적과 관계없이 정원의 3~5%선에서 농촌학생, 근로자자녀, 생활보호대상 독립유공자녀, 소년소녀가장등을 입학시켰다는 몇몇 사립대학들의 구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불만스런 태도를 드러냈다.

그리하여 교육부의 통제관행과 대학의 자율노력이 충돌하는 불협화음의 현실을 우리는 또다시 직시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부의 그러한 통제가 헌법상 합당한 행위인지의 여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교육부의 주무기인 교육법시행령이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법령인지의 여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동시에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방향과 그에 따른 대학의 과제를 재고해 봄은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학의 자율 내지 자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대학은 인사에 대한 자주결정권을 물론 대학의 관리운영에 관한 자주결정권 그리고 학사관

리에 관한 자주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학사관리에 관한 자주결정권이란 학생의 선발, 학생의 진형, 학위의 수여, 학생에 대한 포상과 징계등을 대학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일부 사립대학들이 구상·발표한 추천입학제 또는



정진환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문제연구소장

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대학의 학생선발자율권을 확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대진제를 새로이 삼키고 그러한 대학의 구상과 노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전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그러한 구상과 노력을 가로막는 교육법시행령의 개정작업을 서둘러 대학이 자체의

사실상 지금까지 정부는 대학에 대해 벼를 가지고 통제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에서의 총장선거도 교수 선거를 하고 추천위원회 복수로 추천할뿐 실제로 임명제정은 교육부가 하고 있는가 하면, 대학의 감찰이나 운영비까지 시시건건 법으로 얽어매고 있다. 그러한 하던 학칙 하나 개정하려고 해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대학을 온실에 가둬놓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학의 자치행정은 말뿐인 현실적 통제가 여전한 실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규제의 틀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을 재론의 여지도 없다고 하겠다.

또한 대학은 이러한 획일적 통제가 수동적으로 순응하는데 익숙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그야말로 듣기좋은 미사여구에 불과했다고 하겠다. 엄격히 말해서, 교육부는 헌법정신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지야할 판이고, 대학은 차려진 상마져 얽여버린 책임

을 지야할 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부 사립대학들의 구상과 노력은 높이 평가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교육부는 대학행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만 정하고,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하여, 획일적 통제로 대학으로 하여금 수동적 등등화로 부터 벗어나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대학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스스로 질서를 지켜 나가야 할 과제를 얻고 있다고 하겠다. 즉, 자유를 함유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선의의 경쟁 통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교육 정책변화와 대학의 과제

특별전형제에 대한 교육부의 관여와 간섭을 헌법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합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특히 교육부의 이번 처신은 대학의 완전자율을 누차 강조해 온 약속을 망각하고 위반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온당치 않았다고 하겠다.

이는 곧 명목상으로는 대학이 여러가지 학생선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선택의 여지를 제한하려는 속셈을 여실히 드러낸 듯한 느낌에서 배신감마저 저버릴 수 없다고 하겠다.

구상과 노력을 차질없이 도입, 시행할 수 있도록 조처해 나가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나아가서 교육부는 기존의 대학교육관계법이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봄과 동시에, 차체에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저해하는 대학교육관련법들을 과감히 수정·보완 또는 폐지함은 물론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관계법을 새로이 입안하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대학발전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만성적인 공간부족문제 임시방편으로 해결될 일 아니다"

학생참여 배제한 가건물 공간배치가 문제 발단 주어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

동국대학교가 추진되어 온 미술포로와 실습공간으로 사용될 가건물이 지난 2월말 완공되었으나 설계도상에는 공과에도 포함되어 있어 공간부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현 명진관 옆에 위치한 가건물은 당초 동국대학교를 실습공간으로 사용하던 미술포로에 대한 학교측의 분산이전대책에 맞서 얻어낸 예술대의 투쟁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93학년도 등록금 협상 합의문에도 '예술대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가건물전량을 확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94학년도 합의문에서도 역시 '예술대 가건물 문제는 예술대학생들의 의견을 전면 수용한다'고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가건물에 공과대 기계공과 제1실, 감시실 및 9개과 학생회실이 포함된 설계도를 예술대 학생들이 본 것은 지난 12월, 그후 수 차례 학교당국에 '대안'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했으나 인사업무가 바쁘다는 교무처의 입장으로 계속 미뤄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학생들이 설계도를 보기 이전 공과대학장을 비롯한 예술대교수들도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신현소 공과대학장에 따르면 지난 '93년 1학기에 기계공과대학실습실 요청안을 학교측에 제출했으며 그 사실 또한 당시 공과대학장이었던 현충학생회장 박현식군에게 통보했다고 말한다. 신학장은 "박군에게 이전 확답을 들었다"고 말하는 반면 박군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그 당시의 가건물 설립여부조차도 결정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공과대학생들은 "공간배정에 학생참여가 배제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가건물 전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일

교무처장, 예술대학장, 공과대학장, 미술학과 학과장, 예술대·공과대 학생회장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하고 그 다음날 박성우 공과대학생회장과 이종필 예술대학생회장은 실습실과 4개 공간을 공과대가 차지하기로 합의했다.

관리처는 "가건물에 처음 예술대가 요구한 것보다 공과대수용공간 만큼 더 넓게 지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예술대입장은 "방이 조금 더 넓어진다는 사실이나 그만큼 개수는 줄어들었으며 아직 기자제실 2곳과 소모임방, 공예방이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미술학과 교수연구실은 동국대관리처 박물관들로부터 분산되어 있으며 가건물내의 3개 교수연구실은 아직 풀지 못한 상자가 백백히 들어차 있어 실정이다.

한편 공과대 형편도 마찬가지이다. 기계공과과는 현재 실습수업을

공간의 주인인 학생의 참여원칙을 무시한 학교측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동국의 공간부족현상은 늘상 제시되었던 문제로만 남고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교무처와 한 관계자는 "건물 하나가 새로 지어진다 해도 아마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말한다. 공간부족은 아무리 넓어져도 충분하게 해소되지 않을거란 말은 그날 그날 넘길 수만 없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기계공과과 문제만해도 실험실도 마련인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증원이 불러일으킨 결과였다. 학교측은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임시방편으로 내세우는 주먹구구식의 대책에 중지를 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학교측과 학생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은 전혀 한정되어 있다. 더 이상의 자리싸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물의 증축 또는 근본적인 대책 못지않게 주어진 공간활용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효과적인 공간배치, 나아가 학생문화관의 공간구성, 그에 따라 주어지는 공간의 활용방안을 학생들도 참여한 가운데 미리 강구해 봐야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김소영 기자)

등대지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협소한 강물이나 시냇물에 비유한다면 대학은 길도 없이 끝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망망대해에도 등대지기가 있기에 캄캄한 밤일지라도 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도 교정 혹은 도서관 어디선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동료 학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언론과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94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이 망망대해의 파수꾼, The Dongguk Post는 大道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모집요강

자격: 신체 건강한 94학번 신입생
원서 배부: 1994년 3월 17일 5시 까지
1차시험-면접
일시: 3월 18일 오후 5시
장소: 본사(학생회관 지하)
2차시험-일반영어

* 자세한 문의는 본사로 찾아 오시거나 전화를 이용해 주십시오.
Tel. (260-3493)

The Dongguk Post

특강공고

금번 94년 신학기를 맞아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학우여러분들의 면학에 도움이 되고자 춘계특강을 개설합니다.
특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사명	강의실	강사	시간	기간	수강료	접수처	
TOEFL	L301	우정환	07:30-08:30	328-527	12,000원	만해서점	
TOEIC	L501	이선희	"	"	16,000원	"	
LANGUAGE SCHOOL	미정	미정	07:30-08:30 17:00-18:00	"	70,000원	학복위	
거로 VOCABULARY	L401	김진환	07:30-08:30	"	10,000원	만해서점	
PRIME VOCABULARY	L501	고창복	토요일 (제자)	14:00-17:00	4.2-5.28	8,000원	"
일본어 회화	M404	미정	07:40-08:40	4.4-5.27	40,000원	"	
승강장 APRN	L501	송장홍	17:00-8:00	321-520	35,000원	"	

제10대 학생복지위원회

사설

학술문화관의 사명

내일 (17일)은 역사적인 동국학술문화관의 기공식이 있다. 그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가. 동국학술문화관은 단순히 서울캠퍼스에 틀어박혀서 금세기 마지막 건물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지난 몇년간 학교발전사업의 결실이며 21세기 동국발전의 기초가 되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이 건물의 착공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던 학교당국의 노력은 과히 박수를 받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남산 제모습 찾기 운동본부, 청구정, 서울시 등 각종 공문서를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다녔을 것이다. 또 동창회, 불교계 인사등을 찾아다니며 사업기금을 마련해 내기도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당국은 개교1백주년 기념사업회를 차려놓고 여러 기념사업 특히 동국학술문화관 건립에 필요한 기금등을 모아왔다. 여기서 지난 1년여동안 모은 기금은 4억여원, 동국학술문화관이 완공되는 오는 96년까지 계속 이런 수준으로 모금이 된다해도 실제 동국학술문화관 건립에 필요한 1백50여원은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과연 1백50여원의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한다 말인가. 물론 이 물음의 정답은 바로 학교법인 동국학원이다. 여기서 올해 등록금 협상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않을 수 없다.

학교당국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요인에는 버젓이 동국학술문화관 건립에 필요한 부분이 들어있다. 실제 등록금 인상요인에 전혀 고려되어서는 안될 부분임에도 동국학술문화관, 분당원방병원 등 건설가계정 75억이 등록금 14%인상의 근거로 제시되어 있었다. 사립대학 설치 기준령에 의하면 본교의 교사학보율은 92년 현재 81%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족부분을 학교당국과 재단은 왜 학생에게만 부담시키려하는가.

이러한 상황은 재단에서는 기꺼이 기다리지만 한편 자금이 증가되는 현상을 낳게된다. 그렇다면 재단은 학생을 교육시킬 대상이 아닌 돈벌어주는 수단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동국학술문화관 건립은 전 동국인이 바라고 있는 사안이다. 여기서 건립에 들어가는 재원마련 방법이 일정부분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학교당국과 제26대 총학생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등록금 인상을 합의했다면 그 자체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동국학술문화관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다. 현재 학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공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동국학술문화관의 건립을 바라볼 수 있다. 공간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동국학술문화관을 바라본다면 이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공간문제에 직면해 있는 학내 모든 주체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내일은 동국의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 일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발전적 대안으로 합의했던 등록금 협상이었다면 동국학술문화관은 전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학교발전이 기폭제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중국판형

김성남

5-6월 시험, 대학 학생들(?)
전대 불충분, 2학년 2학기, 1학기 개학일, 1학기 시험, 1학기 시험

94년 1학기 대학 학생들(?)
전대 불충분, 2학년 2학기, 1학기 개학일, 1학기 시험, 1학기 시험

직원모집

1. 모집부문 및 응모자격

근무지	모집부문	응모자격	인원
서	일반직 (행정)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학과제한없음) · 1964.4.1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함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P-C사용 가능한 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선발시 우대) * 전기공학부와 출신자 중 약간명 별도 전형	약간명
	기술직 (사서)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1964.4.1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함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P-C사용 가능한 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선발시 우대)	약간명
경	일반직 (행정)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학과제한없음) · 1964.4.1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함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P-C사용 가능한 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선발시 우대)	약간명
	기술직 (전산)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1964.4.1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함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전산학과 및 관련학과 출신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선발시 우대)	약간명

* 보훈대상자 가산점 부여

2. 전형방법
일반직, 기술직: 필기시험(영어, 논문), 면접

3. 제출서류
가, 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다, 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1통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 1통
마, 불포도 신형증(본교 소정양식) 1통
(조계중산사할 주지스님 직인 및 인장 날인)
바, 경력·보훈증명서(해당자)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4.3.17(목)~'94.3.24(목) 17:00한

5. 시험일시 및 장소: '94.3.26(토) 10:00 본교 서울캠퍼스 교시장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서울캠퍼스 총무과 및 경주캠퍼스 총무과
(02-260-3064~5, 0661-770-2064~5)

8. 희망근무지: 지원서 우측 상단에 희망근무지를 직책으로 표기
* 우송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동국대학교

범죄와 유전자의 관계

범죄성 유발의 핵심요소 결론짓긴 어려워
Y염색체 유전적 요소속 범죄성 지녀
부모 자식간 범죄연관성 30~45%



◇유전자와 범죄의 관계는 항상 거론되어 왔다. 최근 유전자정보은행 추진위 발족후 또다시 제기된다. 범죄를 저지른 이(오른쪽)의 유전자가 위의 사진이라면...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이와같은 질문에 대하여 체계적인 해답을 시도한 것은 수세기 전부터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되고 있다. 수 많은 범죄이론이 등장하여 범죄원인을 어느정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이론이나 범죄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이론이 상대적으로 다른 이론보다 좀 더 설득력을 지녔다 뿐이지, 한 이론이 어떤 행위를 완전히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범죄학의 발달 초기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범죄의 원인을 생물학적인 유전적 요소에서 찾으려 하였다. 점차 범죄학의 역사가 형성되면서 이론의 동향은 바뀌어서 심리학적인 이론들이 등장하고, 18C말부터는 사회학적 범죄이론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범죄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전적 요소는 무용지물이 되었는가? 범죄의 유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은 여러가지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롬부로조를 창시로 한 골상에서, 유전적 범인성을 구하는 초기 실증적 범죄학의 입파, 롬부로조의 인류학적 범죄론을 좀 더 발전시켜 체격형과 성격을 연계시킨 체격이론, 혹은 뇌파측정을 통해

서 범죄의 유전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리 엘리스를 비롯한 많은 범죄학자들은 유전 요소와 범인성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는 실증적 연구의 유형으로 4가지 중요한 접근방법을 들고 있다. 그 첫째는 가계(家系)연구이다. 가계연구의 초점은 사람들간의 유사성을 그들이 유전적으로 관계된 정도와 연계시켜서, 부모의 범죄성과 자식의 범죄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즉 부모 중 한쪽이나 양쪽에서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식이 범죄 기록을 가지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 비율이 30%에서 45%에 이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둘째는 쌍둥이 연구인데, 이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하여 어느 한쪽이 범죄행위를 했을 때 다른 한쪽이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즉 형제간의 범죄행위가 유전적 유사성에 기인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가 형제간의 행위의 일치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적 유사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는 원형질 연구로, 특별한 염색체(성염색체)의 크기와 수를 범죄성과 연계

시키는 것이다. 현대유전자학에 의하면 남자들의 경우 범죄자들은 Y염색체의 길이가 길고 Y가 하나 더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성은 Y염색체가 가지는 유전적 요소의 기능때문이라한다. 끝으로 양자 연구를 들 수 있다. 양자 연구는 주로 출생직후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의하여 입양된 비행자들을 친부모와 양부모에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특성의 원인이 유전적·요소때문이라면, 입양된 비행자들은 그들의 특성이 친부모에 더 가까와야 한다는 것이 기본 가정이다. 이 상에서 설명한 몇가지 유형의 연구들은 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가 유전 인자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연구자 누구도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범죄성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유전적 요소라고 결론을 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여러가지 결과들이 유전적 요소가 어느 정도 범죄성을 유발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원인에 대한 유전적 설명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김보환 (도서관장·경찰행정학과교수)

◇미국 '국보법 철폐 희망' 발언의 배경

“인권보호 차원상 철폐 바람직”
타국의 인권외교 걸림돌 지적, 부끄러운 일
국보법 폐지 논란 계속... 해결점 미궁

인권탄압의 악명으로 지탄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관심이 미국무부 부차관보 토마스 하버드의 "미국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고 있다"는 발언에 의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관심사로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지난2일 하버드의 발언에 연이어 외무부 장관이 주한미 대사를 불러 회의하고 4일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미국의 공식입장'이라는 확인발언이 있은후 민주당은 반박성명을 냈다. 게다가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11일 이기택 민주당 대표와의 연설회담에서 '보안법 개정불가'를 천명하고 나왔다. 정부와 여당이 이제까지의 대미관계에서 보여준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반박 근거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구태여 세계인권선언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권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국제적 대응이 일반화 되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더구나 지난해 7월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서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국제사회의 적법한 관심사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북한이 유엔회원국이

인권외교의 걸림돌로 까지 지적되어 타국의 국가보안법 폐지요청에 의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최근 북한이 대남방향을 강화하는 등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나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며 개정불가론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북한이 유엔회원국이

남북합의서에서의 서로의 실체를 정치적 법적으로 인정한 점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항상 부르짖던 국제화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 수록 설득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난 4일 여야가 합의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다루기 위한 범시위 소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지만 이 또한 민주당의 소극적 자세로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연설회담 때 김대통령의 국보법 개정 반대 발언에 이어 민주당측에서도 개정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소위 구성 자체가 불투명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보법 폐지 논란안이 계속되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단지 하버드 차관보의 발언에 의해 가시화 됐을 뿐 재야나 민주당측에서 계속 제기해온 문제라서 더욱 더 정부나 여당측의 입장의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닐까 보인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국가보안법'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은 이제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통하지 않을 듯하다. (양수정 기자)

사 회 단 신

UR 공산품 재협상

오는 18일 제네바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 우리나라와 미국측의 추가협상이 이뤄질다. 이 협상은 우리측이 제출한 공산품 분야 최종이행계획서에서 전자및 구리제품에 대한 관세인하폭에 미국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전자부품 4%, 구리제품 3%의 관세를 적용은 미국등 다른 선진국의 최종이행계획서를 참조한 것으로 미국측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한겨레 21' 창간

한겨레 신문사의 또다른 매체 '한겨레21'이 오늘(16일) 창간됐다. 21세기 뉴저널리즘의 선구임을 자처하는 이 주간지는 창간 특집으로 '21세기 세계와 한민족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김대중, 조순, 윌러스타인, 부와에, 리파에즈 등의 국내외 석학들의 특필기고를 실었다. 시사주간지 '한겨레21' 창간호는 국내 시사주간지 중에 가장 큰 5X7크기 판 크기로 모토편을 칼리로 꾸미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사회부)

동약로

원진노동자의 봄

블리자지만 아직도 겨울기운이 완연한 매서운 도심의 오후. 그 차가운 바람속을 가르며 불끈 쥔 주먹들이 솟아 올랐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 재취업을 보장하라" 지난 12일 종로공원에서 직업법 대책과 고용보장 정책을 위한 원진대위는(이하 원진비대위)의 울려퍼져 치를 갖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11월 9일 있었던 원진노조와 회사간의 합의서 조인 이후 처음으로 또한 원진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땅의 직업법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원진문제가 직업법 환자의 발생이라는 총격적인 사태로 처음 발발한것은 지난 88년,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휴업, 폐쇄, 파산 조치에 반발하며 원진비대위가 꾸려진 것은 지난해 6월이었다. 5년여에 걸친 투쟁,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정부와 회사에 맞서는 힘겨운 싸움을 계속 해야 했고 주먹쥐



는 것조차 어색했던 그들의 손에 어느새 연장과 기계적인 쇠파이프와 각목이 어울리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왜 또다시 그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하는가? 이들의 주장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원진 문제는 아직 근본적인 해결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직업법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산재노동자들이 병원에서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취업의 길이 뚜렷하지 않은 이들은 합의를 통해 받은 검진비용을 생계비로 쓰고 있어 검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비단 원진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노동자들과 예비 노동자들의 문제며 그들의 투쟁은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들 원진 노동자들의 가슴속에 봄이 오는 것은 언제쯤일까? (허동혁 기자)

중외제약
렌즈관리 용품도
중외제약입니다

세척과 단백질제거를 한꺼번에 - SPC액
고객여러분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SPC액 200만병 돌파 특별보너스

두가지 보너스를 받아주세요! 여행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 렌즈관리용품 여행용기방**
세척액, 행글액, 렌즈봉, 보존소독액등을
이쁘고 실용적인 가방에 소독,
신기한 여행을 즐기세요.
- 간편 행글액 등**
여행시 꼭 필요한 행글액 - 무작정
큰 봉을 들고 다닌다고 불편하셨죠?
이젠 여행일정에 따라 필요한 양만
넣어주세요.

SPC액은 가까운 약국이나 렌즈전문
취급점에서 구입하세요. 구입하신 모든
분에게는 예쁜 사은품을 드립니다.

■중정기간: '94년 3.10~3.29

올바른 콘택트렌즈 관리법

1. 손을 깨끗이 씻고 렌즈를 만질 것
2. SPC액으로 거품을 충분히내어
문질러 세척하고
(이때 단백질도 제거됨)
3. 뷰티프로으로 반복 행글, 소독은 매일매일
4. 착용전에 꼭 한번 더 행글이 좋겠

꼼꼼한 분들이 선택합니다 - SPC액

SPC액은 간편해서 순해서 참 좋아요.
단백질제거제가 따로 필요없고, 수용성이라
눈은 늘 촉촉하죠.
꼼꼼한 신세대는 SPC액을 선택합니다.

**중외제약의
렌즈관리용품 시리즈**

- 세척 및 단백질제거제 SPC
- 렌즈 세척액 중외크리너
- 콘택트렌즈를 행글할 때 쓰는 뷰티프로
- 주1회 단백질제거제 사렌노트
- 보존소독액 뷰티프로

렌즈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
SPC액 에스피씨 액

● 수입원제품 ● 렌즈관리제거제 ₩ 5,500(2개월분)

남북한 합작 학술회의 '통일을 지향하는 철학' 주제발표

민족 공동체 의식과 화쟁 사상

일승의 경지에서 남북이산가족 왕래 승인·폭넓은 대화 허용... 통일기반 구축

오형근

불교대학원 원장·불교학과교수

1. 서론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고 단일문화를 지니고 있다. 민족의 성품이 착하고 화합을 잘하며 예의가 바르다고 해서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찬란한 별칭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민족의 뜻과는 달리 조국이 분단되고 민족도 분단된 아픔을 겪고 있다. 남북의 민족간에 대결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손실이 너무 많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일시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삼팔선은 현존하고 있으며 분단된 조국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스스로 합일을 못다한것을 반성하면서 모든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여 조국의 통일에 헌신할 때라고 생각한다.

2. 민족의 자각과 공동체 의식

해방후 거의 50년간 조국이 분단된채 민족이 두갈래로 나누어져 사는동안 민족의식이 무디어진것 같다. 우리는 다같이 단군을 시조로한 한민족이라는 것을 상기 하면서 확고한 민족의식을 회복할 때이다. 우리 모두가 보다 대중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민족의 화합과 단결정신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교철학의 동체대비(同體大悲)사상에 의하면 모든 민족은 내 몸과 같다는 민족적 공동체 의식을 갖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국을 건설할 수도 있다. 민

족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바탕은 다름과 같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 민족이란 피부 머리발의 색깔 눈의 빛깔 코의 형태 얼굴의 윤곽 머리의 형태 키 체격의 식·주·생활 풍속 습관 종교 언어 등이 같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에 의하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이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 불교의 업력설(業力說)을 들 수 있다. 불교의 업력설에 의하면 업의 뜻은 몸의 행동과 마음의 행동 그리고 습관, 지식 등을 의미한다.

태아(胎兒)는 부모를 택할때도 업력이 같은 부모를 선택하게 되고 출생할때도 출생할 지방의 사람들과 업력이 같은 것을 목격하고 기뻐하면서 출생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확신은 인간은 업력이 같은 사람들끼리 민족이 되고 씨족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있다.

민족이 될 수 있는 특성과 업력설을 알게 되면 민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서로 아끼고 도와주며 단결하게 되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3. 조국과 민족의 동체성

조국은 자신이 출생한 나라를 의미하며 또 조상들이 살아온 나라를 의미한다. 그 조국은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 하기까지 자신의 해를 주면서 생존하도록 도와준 모체이기도 하다. 중국의 규기대사(632~682)의 신라의 원효대사의 학설에 의하면 민족은 조국에 의거하여 생성할 수 있고 조국은 민족의 업력에 의하여 창조된다는 학설이 있다. 그들의 학설에 의하면 자신

이것이 수용하는 업력을 불공업(不共業)이라 하고 형색과 언어와 풍습등이 서로 같은 것을 조성하는 업력을 불공중업(不共中共業)이라고 한다. 이 업력은 세계속의 사람들과는 다른 민족을 형성하는 업력을 말한다. 그러나 동일한 민족이 의거하여 살 수 있는 국가는 공중공업(共中共業)에 의하여 건설된다고 말한다. 공중공업이란 인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질가운데서도 가장 공동의 물질과 문화를 조성하는 업력을 말한다. 이와같은 업력설에 의하여 볼때 민족은 같은 업력에 의하여 살고 있고 조국도 민족과 더불어 공동의 업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동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의 원효대사는 물질의 성품은 공성(空性)이며 동시에 물질의 성질은 지인이 되며 지성은 물질의 체(色體)가 된다는 색심불이(色心不二)의 사상을 말하였다. 색심불이는 극토와 정신이 하나라는 뜻이다. 원나라 보도지상(1305) 신토는 본래 두모습이 아니다. 신토본래무이상(佛土本來無二相)라고 하면서 신토불이사상을 주장 하였다. 성유식론(成唯識論)에도 자성신(自性身)과 법성토(法性土)는 오직 하나의 경지라는 기록이 있다.

이와같이 옛 선각자들은 인간과 국토는 일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학자들도 거의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많

다. 이상과 같이 민족과 조국이 풀이 아니라는 확신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모든 본성은 서로 통하며 일여(一如)의 경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라만상은 자기 독립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진리적으로는 일체(一體)이며 일여(一如) 일승(一乘)의 경지에서 합존(恒存)하고 있다. 이러한 진리에 입각하여 본다면 민족은 곧 조국과 풀이 아니라 일체라는 지혜를 가질 수 있으며 갖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4. 대승성과 자성의 신뢰성

일제기 신라의 원효대사는 유심사상(唯心思想)을 깨닫고 마음이 생기면 여러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으면 여러 법도 없어진다는 오도(悟道)의 계승을 남겼다. 이 오도명(悟道頌)은 모든 행풍은 마음으로 부터 시작되며 마음은 모든행풍의 근원이 된다는 사상을 담고있다. 다시말하면 모든것은 우리 마음에 의하여 창조된다는 말이다. 소승적(小乘的)인 마음은 자기이익만을 추구하고, 대승적(大乘的)인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면서 이타행을 실천하는 마음이다. 대승(大乘)의 대(大)는 일체 중생과 모든것을 포용한다는 뜻이고 승(乘)은 모든 사람들을 진리의 도량에 도달케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대승은 허공과 같이 일체의 중생을 포용하고 재도한다는 뜻이다.

원효대사는 이러한 대승심(大乘心)의 넓고 깊음을 바다에 비교하기도 하였다. 바다는 첫째, 매우 깊으며, 둘째, 넓고 크며 셋째, 무궁한 보배를 갖고 있으며 넷째, 모든 모습을 나타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다의 뜻은 진여심(眞如心)에도 비유를 해서 진여해(眞如海)란 말을 쓰기도한다.眞如心에는 갖가지 시비가 없는 것이며 만인을 포용하는 덕성을 구비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사상은 옛적부터 우리민족에게 전해져서 정신문화의 뿌리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대승적이고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발휘하여 서로 포용하고 화합하며 신뢰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5. 화쟁사상의 실현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도 훌륭한 정신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그근운데 하나가 화쟁사상(和諍思想)은 슬데없는 정론(靜論)을 삼가고 서로 화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화쟁사상은 원효대사가 당시에 분분했던 논쟁을 정지시키고 그 사회를 화합의 사회로 이끌어 가고자 심문화쟁론(心門和諍論)을 저술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 화쟁의 뜻을 정론과 화합의 뜻으로 분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정론과 불화

구사론에 의하면 정론은 곧 번뇌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선심을 충동하고 자신과 타인을 손해케하는 것을 뜻한다. 신라의



◇남북한 합작 학술회의가 '통일을 지향하는 철학'이란 주제로 지난 2월 21-22일 양일간 북경에서 열렸다.

원속법사는 정론은 자신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논쟁을 하지 않고 화합하려면 먼저 마음을 비우고 아집과 소유욕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사리사욕을 없애고 모든 사람과 화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속법사는 정(靜)의 뜻을 번뇌정(煩惱靜)과 온정(溫靜)과 투정(頭靜)등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번뇌정(煩惱靜)은 백팔번뇌(百八煩惱)가 생겨서 시비와 논쟁을 야기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온정(溫靜)은 몸을 싸우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죽음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투정(頭靜)은 여러 유정(有情)들이 서로 투쟁하며 욕보이는 것을 뜻한다. 이와같이 정론은 불화를 조성하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번뇌의 뿌리가 되는 번뇌(煩惱)와 집착(執着)과 치심(痴心)의 체성(體性)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나 화합과 평화

화는 곧 화합을 의미하며 불화를 제거하는 마음에서 발생한다. 화합의 본뜻은 두사람 이상의 무리들이 모였을 때 의견이 일치되고 잘 화합한 것을 뜻한다. 우리 인간은 하나의 개체라 할지라도 두사람 이상이 살고 있는 인연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협력해야한다. 다시말하면 둘이상의 사람이 집합할때 번뇌로써 마음으로 만나면 경계가 생기고 상대적인 입장에 서게된다. 그러나 만약 지혜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피차간에 경계가 없는 불분별한 지혜(無分別智)로서 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마음 가짐에 따라 상대가 되고 절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화합을 이룰려고 한다면 먼저 이기적인 마음을 비우고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경지에서 만나야한다. 원효대사는 심문화쟁론(心門和諍論)서 문에서 나는 율고 그르다 하는 본뜻은 옳지 않으며 화쟁정신이 아니라고 하였다. 원속법사는 대승(大乘)은 화합을 전제로 모이는 것이며 화합을 잘 이룬 대중을 화합중(和合衆)이라고 하였다.

원효대사는 화합의 경지가 성취되면 일승(一乘)의 경지가 열리며 일승의 경지는 곧 화합의 경지이며 절대의 경지로서 다름과 같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같이 스스로를 절단할 수 없고 둘째, 손가락이 스스로를 가리키지 못하며 셋째, 눈은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는 비유를 들고있다. 이와같은 비유는 상대(相對)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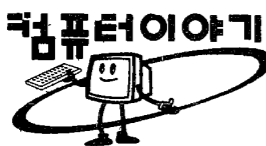
니라 절대(絶對)의 경지를 알리는 것이며 그 절대의 경지가 바로 일승의 경지인 것이다. 일승의 경지는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등 여러사람들의 마음이 합일된 경지이므로 절대로 분산되지 않으며 이것을 회삼귀일(會三歸一)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대화합때 민족 스스로 분단하거나 논쟁을 벌인다면 이는 상대적인 대면이며 일승적인 대면은 아니다.

6. 결어

학자들은 민족의 정의를 얼굴과 체격과 풍속등이 같은 씨족이어야 하며 시조도 같고 혈통도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민족은 학자들이 내세우는 모든 조건을 구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업력설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공동의 업력에 의하여 태어났고 또 살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단군을 시조로한 민족이라는 점에서 어떤 민족보다도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상부상조하는 단결력이 강하다.

원효대사는 화합과 합창 정신을 강조할 때 두 뿌리가 수레를 힘차게 운반하듯 하라하고 또 새로 두 날개가 새를 창공에 힘차게 날아가도록 하듯이 협력하고 화합하라고 하였다. 만약 새의 한 날개와 수레의 한 바퀴가 불구가 되거나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그 새와 수레는 정상적으로 날거나 굴러가지 못하게 될것이라고 원효대사는 비유를 들고있다. 이러한 비유와 같이 남북의 민족이 정론을 삼가고 조국을 통일하는데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때 사를 들고있다. 이러한 비유로 삼팔선을 하루빨리 거두고 서로 원대할 수 있도록 화합된 힘을 발휘해야 할것이다.

같은 풀이라 할지라도 '독자가' 가지면 독을 만들고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든다는 말과 같이 독이 독을 벌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대승적인 마음을 열고 일승의 경지에서 남북의 이산가족도 만나게 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무역도 하며 예술문화도 교류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서로 분신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 하였고 서로 신뢰하며 공동체 의식을 갖는것은 지혜의 행위라 하였듯이 신뢰를 쌓고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야 하겠다. 현재 우리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산되어 있고 국토도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왕래도 못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후손들에게 무능함을 보여줄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민족의 단결을 보여주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통일 의 과업을 완수하도록 정진해야 하겠다.



PC투뇌-중앙처리 장치 주변기와 호환성 고려

컴퓨터의 성능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의 투뇌역할을 하는 중앙처리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 부분으로 흔히 프로세서(Processor) 또는 칩(Chip)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미국의 인텔사와 모토로라사에서 바로 이 프로세서를 대량생산하고 있는 8086, 80286, 80386, 80486, 펜티엄(Pentium)은 인텔에서 나오는 프로세서의 상품명이며 68020, 68030, 68040은 모토로라 프로세서의 상품명이다. 인텔 프로세서는 IBM 계열 PC에 주로 공급되고 있는 반면 모토로라 프로세서는 매킨토시에 공급되고 있다. 컴퓨터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86PC, 386PC 라는 말은, 바로 이 인텔의 80486, 80386칩을, 부차한 개인용 컴퓨터라는 의미이다.

컴퓨터는 이진법이라는 수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운용되는 기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량의 최소단위를 표현할 때 이진수의 의미를 지닌 Bit(Binary digi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16bit, 32bit, 64bit라는 것은 컴퓨터가 처리하는 정보 흐름의 차이로써 이는 마치 많은 차량이 16차선 도로와 32차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8086과 80286칩은 16bit, 80386과 80486칩은 32bit, 펜티엄은 64bit 프로세서다. 펜티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그 이유는 펜티엄이 데이터의 입출력 통로(데이터 버스)는 64bit이지만 메모리 입출력 통로(어드레스 버

스)는 32bit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486보다 상위기종임에는 틀림없다.

386과 486은 다시 SX, DX, DX2로 나뉘어진다. 386-SX와 386-DX급 이상의 차이는 외부기기와의 데이터 교환은 16bit단위로, 메모리와의 정보교환은 24bit 단위로 한다. 이에 반해 386-DX급 이상은 모두 32bit 단위로 처리를 한다. 386-DX와 486-SX급 이상의 차이는 메모리와 프로세서 사이에서 데이터의 이동을 가속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캐시(Cache)메모리를 내부에 갖고 있는지의 여부로 가능할 수 있다.

또한 386-DX, 486-SX, 486-DX급 이상의 차이는 매스컴프로세서(Math Coprocessor)라는 수치처리등에 꼭 필요한 부동소수점 계산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의 유무에도 달려 있다. 486-DX 이상에는 이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다.

프로세서의 처리시간을 나타내는 클럭속도의 정상적인 속도는 486-DX가 33M, 486-DX2가 50~60M 정도이다. 하드디스크는 정보의 이용량이나 요구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200~400MB사이의 용량은 꽤야 원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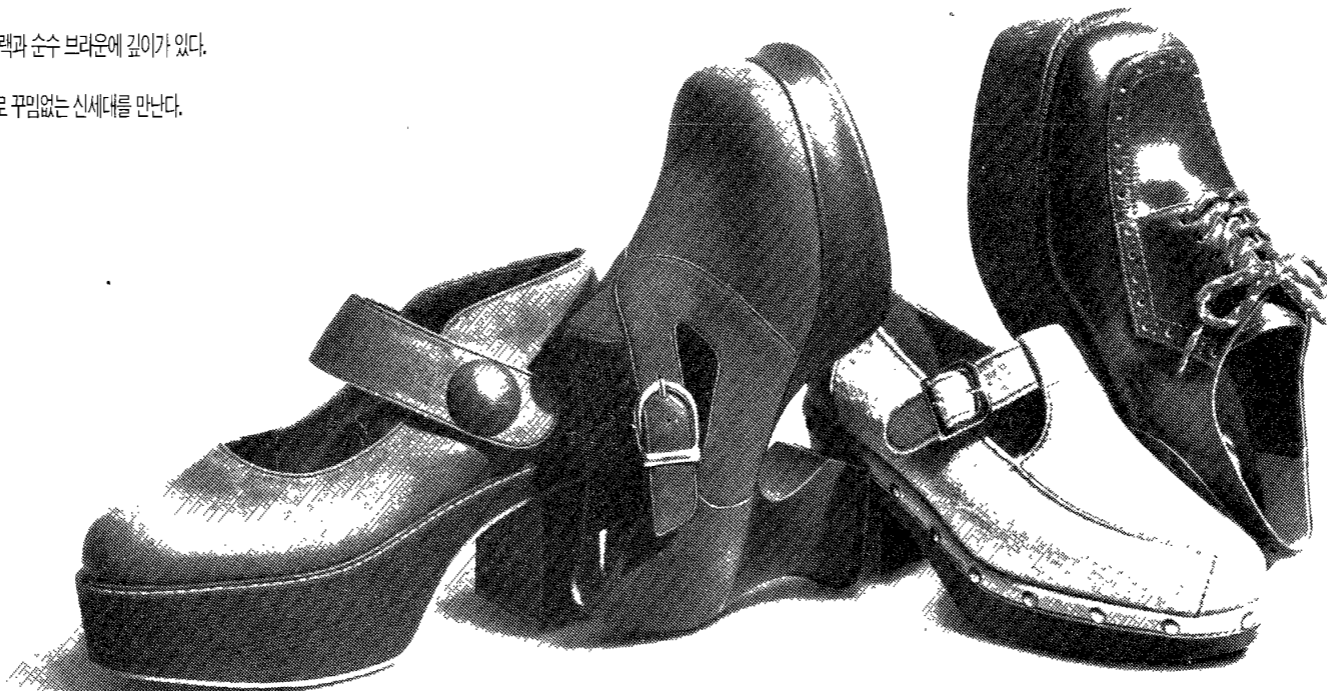
성능향상은 486-SX급 이상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의 추가 활용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중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변기기와의 호환성 여부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 동 철

(대성교육출판 전신편집실·컴퓨터공학과94학)

빠르게 변화한다, 신세대 패션리듬 - 심플리트

- 자연스럽게 흐르는 선이 감각적이다.
- 고급스런 고급, 무늬 앞가독 특한 조화를 이룬다.
- 침묵의 블랙과 순수 브라운에 깊이가 있다.
- 심플리트로 꾸미는 신세대를 만난다.



캐주얼 슈즈의 새로운 표정
영어이지
YOUNG AGE

◇ 우리의 전통 종이 - 한지

**누에고치 넣어 하얗고 비단 같아
책장 뜯어 옷솜 대용·신발 제조**

최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한지란 전통적인 종이제조법에 의하여 만든 종이로서 그 원료는 닥나무 혹은 산지닥나무를 사용한다.

전통적인 종이제조법은 원료인 닥나무의 껍질(흑피, 黑皮)을 벗겨서 양재물로 삼고 실처럼 풀어지도록 하얗게 된 섬유(백피, 白皮)를 물질(물고투) 종이로 짜내도록 틀 위에서 흔들어서(중)하고 말려서 만드는 방법으로 그 원리는 오늘날의 종이제조원리와도 대동소이하다.

이 종이를 최초로 개발한 곳은 중국이지만 종이문화를 발전시키고 세계에 전파시킨 것은 우리 민족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동쪽으로 일본에 제지술을 전한 것은 승려 담징(10년)이었고, 서쪽으로 종이문화가 전해진 것은 고구려 유인 출신의 담(檀)의 장수 고 선지에 의한 달라스 전투(51년)가 계기가 되어 서방으로 전해진 것이다. 또한 세계 세계 최초로 염색지를 개발하였으며, 종이와 불기법의 관계가 있는 인쇄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예로부터 우리나라 종이 질이 좋다는 것과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은 소문이 나 있었다. 중국문헌인 박물요람(博物要覽)에 의하면 그림을 그릴 때 먹을 먹는 종이(고려지, 高麗紙)만큼 겸손한 것이 없다고

했으니 종이에 대한 칭찬 치고는 극치라 하겠다. 그래서 송나라에서는 이 고려지로 글을 쓰는 것을 상류사회의 멋으로 알았다. 주요한 무역품으로 종이와 비단도 수출된다.

문벌을 뿐만 아니라 질기기로도 우리 종이 세계 제일이었다. 중국의 고자(高子)는 "고려지는 질겨서 만지(縵紙)라 하는데, 누에고치를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회기가 백설 같고, 질기가 비단같다."고 하였다. 얼마나 질졌으면 가죽과 비슷하다고 등피지(等皮紙)라 하였을까. 그래서 우리 종이는 건축재로서 문을 바르기도 하였다. 창호지라 불리는 이 종이는 오늘날의 문과는 종기는 종류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종이만이 가지는 독특한 장점이 있었다. 그것은 습도조절 기능으로서 날이 흐리면 습기를 머금었다가 건조하면 이를 내뿜어 항상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기능이 그것이다. 오늘날의 아파트에서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보라.

옛 선비들이 한여름에는 마당에 토담집을 짓고 거기서 피서를 했는데 문은 종이를 바르고 있었다 한다. 오늘날의 바이오세라믹용기와 비교해 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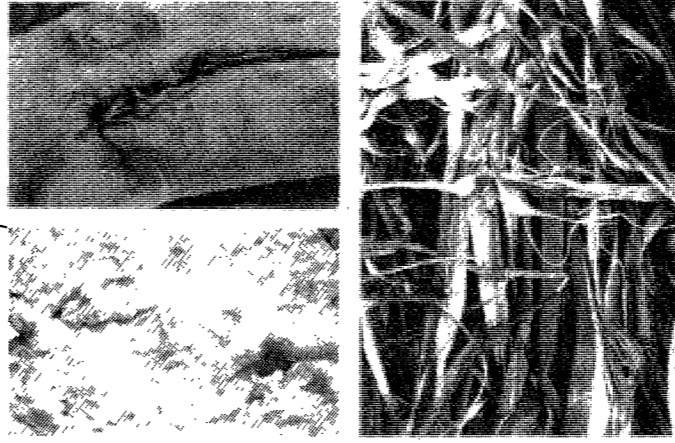
한말 러시아의 조사보고서인 한국지(韓國誌)에서는 "한국의 종이는 섬유를 빼어 만들므로 어쩌나 질긴지 노끈을 만들어 별의별 공작을 다 한다. 종이에선 결이 있어 이

결을 찾지 않고서는 찢어지지 않는다." 이 질긴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종이를 다양한 용도로 개발한 나라도 없다. 우산이나 부채 정도는 약피이고 종이인, 종이웃, 종이등잔, 종이요강까지 있다면 서양사람들은 이를 보고 무엇이라 할까.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전통은 바로 우리 선조들의 절약과 재활용의 지혜이다. 길을 가다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길에 떨어져 있으면 이를 주워서 문간 옆에 두었다가 불쏘시개로 썼던 우리의 선조들이 종이는 어떻게 다시 사용했는가. 추위가 닥치면 선비들이 북면에서 국경을 지키는 장졸들에게 워고난 책들을 모아 보내는 관례가 있었다. 이 책장들을 종이 지(紙灰)를 만들어 입거나 그 종이의 섬유를 풀어 옷솜으로 사용하거나, 신발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이토록 훌륭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오늘날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몹시 안타깝다.

요즘은 종이접기가 유행이라고 한다. 어릴 때 하던 종이접기가 머리가 좋아지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창의력이 길러진다고 하여 젊은 부모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 종이로 해보면 어떨까, 혹은 우리의 종이공예도 다시 되살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다.

오 정 수

(농과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가죽같이 질기다 하여 등피지라 불리고 송나라 상류사회에서는 한지를 쓰는 것을 멋이라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종이는 인정받았다. 사진(위)은 한지의 재료인 닥나무와 물질을 하는 장면.



그동안 민중미술의 대중화라는 책임을 맡고 있던 '그림마당 민'이 이달 31일 폐관한다고 한다.

기존의 문화로는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무료기획자들을 실시했었던지라 자금난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폐관이라고 한다. 87년 7월 2일 이한열군의 영결식에 나왔던 대형그림 '그대 뜰 눈으로'를 제작했던 화가 최민화씨는 그림마당 민의 폐관이 유중 민중미술의 명폐단 달이놓고 작품활동에는 불성실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꼽고 있다.

최민화씨는 종로구 관훈동에 대규모 전시실 '이십일세기'를 개관한다. 그는 민중미술전영이든 아니든 성실한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라고 그의 계획들을 밝힌다.

민중미술전영 2세대의 선두주자라 불렸던 그가 운동의 전선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제도권 미술과 민중미술을 갈라놓는 등의 파업을 되풀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단답'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걸 대신할 수 없는 민중문화가 이제 '대중화'라는 넓은 공간으로 뛰어넘고 있는 모양이다. (이유리 기자)

◇ 민중예술의 대중화

**'국립' 미술관서 민중미술 대거 전시
현장 생동감 없는 고정전시 아쉬워
민중 미술계 내부 자기모색 움직임
"제도권·민중미술 나누지 않을 터"**

과를 노린 민중미술가들의 연구성과였는데 그 기법은 불화, 민화의 전통양식을 계승해 집회, 시위에서 미술이 할 수 있는 몫을 최대한 해냈고 그로인해 파괴됐지만 80년대 미술운동의 큰 성과라 할만하다.

중앙을 1층에 전시된 작품은 한양대 노천극장에 걸렸다가 파괴된 '민중해방운동사', 지난해 노동자대회에서 보여졌던 '노동자' 반전반핵' 등이다.

제3기:창작의 결실과 전시(1990~현재)

주에서 보여주듯 제3기는 1·2기에 보였던 민중미술이 현장중심에서 개인창작활동 중심으로, 그들이 집착하는 것도 현실만이 아닌

인간·환경·역사를 포괄하는 등 핵심이 바뀌고 있다.

기교와 소재 그리고 주제면에서도 젊은 작가들의 개성이 보인다. 천이나 나무 위에 아크릴릭을 한지나 새로 등장한 매체미술, 페미니즘까지 소화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예이다.

소외당하고 파괴당하기 일쑤이던 민중문화가 그중에서도 미술분야가 '국립'의 초대'를 받기 얼마전까지만 해도 문화계에서 문인정부의 '문화정책'이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래서 일부는 이것이 정부의 '문화 유희정책'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다.

민중극 계열도 예외는 아니다. 노래극 '노동의 새벽'이 동종동의 연극가에 진출하게 되면서 민중문화가 점점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대학가나 노동현장이 아닌 대극장무대에 서 성공을 거둔 것이 앞으로의 방향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미술과 연극이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열기를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긴 했지만 미술은 현장의 생동감을 살리지 못한 채 고정적으로 전시됐고 연극은 연극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업논리에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건장한 대중성 지향에 일침이 될듯하다.

관과 우를 함께 전시한 '민중미술 15년: 1980~1994전'이 2월 5일부터 오늘 (16일)까지 사립공간인 첫 선을 마쳤다.

국립현대미술관 1·2·7 전시실과 중앙홀 1층에서 제1·2·3기 연대별로 회화·조각·판화·사진·민화 등의 다양한 민중미술의 양상을 선보였다.

제1기:소집단 미술운동과 진보적 리얼리즘을 다룬 작품(1980~1984).

민중미술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다 '이중'이었던 이때의 대표적 작가로 민중미술의 방향을 설정한 오윤, 89년에 제작했으나 압수당한 뒤 행방을 알 수 없는 '모내기'의 신학철, 여러 장르를 소화하고 이 전시회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낸 임옥상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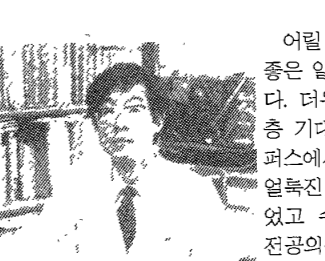
이들은 미술이라는 장르가 사회 비판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미술로 대신하기 시작했다.

제2기:전국 미술인 조직의 결실과 미술운동의 확산(1985~1989)

소집단 운동으로 시작된 민중미술이 확산, 발전되고 87년 6월 학생을 기점으로 절개그림, 벽화, 판화 등 집단창작물이 대거 출몰 된다.

절개그림은 대중에게 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는 효

**달 하나 천 경에
구춘유감 (舊春遺憶)**



어릴 적부터 해마다 봄이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바람을 가졌다. 더우기 대학에 들어와서부터는 한층 기대가 컸었지만 갖춰지지 않은 캠퍼스에서 발버둥친 봄, 대모와 휴교로 얼룩진 봄, 내내 시험에 시달린 봄도 있었고 수련의 시절의 처절했던 봄에다 전공의를 마친 후 실직의 봄 등등 이번이 '그날 봄'이어서 좋은 봄'으로 지나가고 말았다. 그러나 끈질긴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악조건들을 극복하여 조금이나마 봄을 느낄 수 있었고, 남모르는 조용한 인내의 시간들이 없이 꽃피는 봄을 만끽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기에 서운함과 아울러 아쉬움도 있어 '추억으로 떠올릴 만한 봄'이라 하겠다.

그런데 작년 봄은 달랐으니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잔뜩 남아 있다. 약사편 시행체계의 틀어놓기에 따라 약사들의 한약 임의 조제가 가능해지면서 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와 시위, 상경 농성, 가두 선전으로 이어지고 학생과 교수들은 본연의 임무에서 밀려나야만 했다. 급기야 유급사태까지 이르게 되었고, 패스컴에 오르내리다가 집단이기주의의 전횡으로까지 비추어지게 되어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전통의학의 계승과 발전을 무시하고 정권 교체기를 틈타 속속으로 처리하고 문제화된 뒤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생각이 대학미련에 농장을 부린 보사 당국자 탓에 자포자기 하기도 했다.

책을 읽을 틈이 좀 생겨 구내서점에 들렀더니 사교자 했던 신간 서적이 하나도 없었다. 대도시 변두리의 조그마한 서점보다도 신간 코너가 좁고 구비가 적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고지 시험에 실린 나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라버렸다. 50매에 달하는 원고를 워드프로세서로 쳐서 여러번 교정을 받고 넘겼었는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1백문제가 넘는 오기가 있나... 심지어 여러 줄을 빼먹은 곳도 몇 군데나 있었고, 다른 사람의 글에도 더러 잘못 된 곳이 보였다. 편집 과정에서 인쇄소의 잘못을 교정 보지 않은 탓인데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했다.

운동장에서는 며칠씩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보였다. 수업 결손도 물론인데 하루 만에 안되는 건지, 봄의 등산대회와 가을의 체육대회면 충분하지 않을까, 체력을 단련하고 뜨거운 감성을 해소하는데 운동이 좋지만 개인적으로 틈틈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었다.

이렇듯 지난 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봄'이 되고 말았다. 어떤 상황이라도 다음 봄을 생각하며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만 같았다. 다짐과 캠퍼스의 봄을 꽃피우기 위해선 우수 교수 초빙과 시설 확충 등이 시급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동국인의 내적인 개혁도 있어야 한다는 느낌은 남았지만, 이번 봄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정 지 천

한양대 한의학과 교수

문학단신

공연인내

◇강강술래...국립무용단에서 92년 3월에 초연한 강강술래는 북한 연행된 총리가 방문했을 때 선보여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민속놀이 '강강술래'와 격동의 '한국 근대사'를 성공적으로 결합했다. 스토리 나열식의 구성을 배제하고 강강술래 노래형식을 살렸으며, 폭우, 2인무, 집단무로 표현되는 한국춤의 고난도 기교를 선보인다. 또한 신화, 설화, 민담 속에 나오는 동물춤이 등장하는 것도 특이하다. 국립중앙극장.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문의 274-1173

공연인내

◇로미오와 줄리엣...세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조지 오웰의 '1984'를 우리의 정신적 소산인 4·19정신과 맞닿는 내용을 극으로 재구성했다.

무겁고 현학적인 주제를 익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1백% 음악으로 대체하여 록 콘서트장과 같은 분위기로 만든다. 모두 창작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극배우로 이루어진 출연진이 악기를 번갈아 연주한다. 바람골 소극장. 3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문의 991-7160

모든 코코스는 미도파가 직영합니다.

All A+ COCO'S

맛A+ / 분위기A+ / 서비스A+

코코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코코스에서 마시는 다정한 친구와의 따스한 차 한잔도 즐겁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 하나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전해 온 웨밀리 레스토랑 코코스 / 각종 일품요리와 파스타류, 디저트와 음료등 100여 가지의 다양한 식단은 여러분의 미각을 충분히 만족시켜 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인 가격대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부담을 덜어주시도록 다양합니다.

따뜻한 느낌의 코코스는 맘껏 드실 수 있는 아메리칸타입의 커피와 더불어 데이트의 즐거움을 더해 드립니다.

CALIFORNIA RESTAURANT COCO'S 미도파

●신사점 TEL 548-6904/5	●대치점 TEL 561-1112/3	●석촌점 TEL 419-2873/4	●성내점 TEL 487-2473/4	●평택점 TEL 522-2527.3071	●미아점 TEL 989-5492/3
●서초점 TEL 587-2178/9	●양재점 TEL 579-7748/9	●수원점 TEL (0331)33-4731/2	●이수점 TEL 536-9677/8	●군자점 TEL 498-0728/9	●중앙점 TEL (032)431-4408/9
●삼계점 TEL 939-2222	●역삼점 TEL 565-6094/5	●신촌점 TEL 365-3905/6	●동교점 TEL 335-1874/5	●부천점 TEL 540-2475/6	●부천점 TEL (032)613-2383/4

“코코스는 1년 내내 쉬지 않습니다.”

오전 11:00 ~ 오후 24:00

◇ 94학년도 등록금 협상을 평가한다

학생회 주도적 대응 미흡 아쉬워
자치기구 체계 강화 통한 집중력 요구돼

94학년도 등록금 협상이 지난 17일 학교당국과 총학생회간의 합의 조인식을 마지막으로 일단락 됐다. 예년 본교의 모습이나 타대학의 모습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하게 이번 등록금 협상은 정리되는 듯 하다. 14%인상의 근거제시를 요구하는 입장이나 다수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지, 한해 학원자주화 운동의 정책들을 요구하는 입장들을 위로하고 등록금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동의없이 총학생회의 독자적 결정으로 정리됐다.

정리돼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 등록금 협상을 진행했던 제26대총학생회의 정책을 보면 대립보다는 대안의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작년 합의발부정신을 이어 동국발전위원회, 동국중흥한마당, 대학자책평가제 실시등을 구체화 시켜내면서 학사행정에 학생참여 보장과 교육재정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주된내용이었다.

협상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총학생회의 발전적 고안에서 나온 내용인 듯 싶다. 하지만 이번 등록금 협상의 정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쉬움이 남을수 밖에 없다. 첫째 여전히 상충주의의 협상과정과 정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이런 여운이다. 둘째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정책 운영이 문제점으로 노출됐다. 사실상 학생자치기구의 최고결기구인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등록금 협상을 거치면서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셋째 등록금 합의 내용의 부실성을 지적할 수 있다.

개교100주년기념사업
동국학술문화관 기금 기부자 명단

- 홍종표(불교대학원) 3백만원, 김상훈(행정대학원) 3백만원, 황정부(행정대학원) 3백만원, 이종국(경영대학원) 3백만원, 김익재(학부) 50만원, 김용준(행정대학원) 50만원, 김지도(행정대학원) 100만원, 김장복원(행정대학원) 50만원, 김영주(행정대학원) 100만원, 김복화(행정대학원) 50만원, 김백정기(행정대학원) 100만원, 김치만식(행정대학원) 100만원, 김진창국(행정대학원) 50만원, 김이동은(불교대학원) 100만원, 김정현상(행정대학원) 200만원, 김한미경(행정대학원) 100만원, 김박영수(행정대학원) 50만원, 김이상원(직원) 20만원, 김이광호(신설기술대학원) 100만원, 김희경호(행정대학원) 200만원, 김형태(행정대학원) 200만원, 김대은(행정대학원) 100만원, 김규의(행정대학원) 100만원, 김순환(행정대학원) 100만원, 김최상(행정대학원) 100만원, 김최기연(행정대학원) 100만원, 김이남영(행정대학원) 200만원, 김이희년(행정대학원) 100만원, 김박성근(행정대학원) 100만원, 김박희부(행정대학원) 150만원, 김만희(행정대학원) 200만원, 김상훈(행정대학원) 300만원, 김경안(행정대학원) 50만원, 김정광선(행정대학원) 100만원, 김이동규(직원) 50만원, 김수송용(행정대학원) 100만원, 김박진일(행정대학원) 100만원, 김황정부(행정대학원) 300만원, 김차영호(동문) 10만원, 김홍근(동문) 50만원, 김명곤(불교대학원) 100만원, 김조용배(행정대학원) 100만원, 김유중기(직원) 50만원, 김희병두(행정대학원) 100만원, 김이기분(행정대학원) 100만원, 김이명인(동문) 100만원, 김경석(행정대학원) 100만원, 김이상권(교수) 50만원, 김박명국(불교대학원) 120만원, 김강철규(불교대학원) 10만원, 김박중운(동문) 50만원, 김수진이(행정대학원) 100만원, 김성태(행정대학원) 20만원, 김낙진(동문) 50만원, 김박세종(동문) 50만원, 김경안(행정대학원) 50만원, 김신봉근(직원) 50만원, 김김재욱(불교대학원) 30만원, 김김치우(불교대학원) 100만원, 김김병섭(불교대학원) 50만원, 김이운중(불교대학원) 50만원, 김이중무(동문) 20만원, 김전익홍(동문) 10만원, 김조성실(동문) 10만원, 김하철근(경영대학원) 10만원, 김남윤근(행정대학원) 100만원, 김이기욱(행정대학원) 100만원, 김양기선(행정대학원) 100만원, 김민연화(불교대학원) 50만원, 김이종국(경영대학원) 300만원, 김이두성(경영대학원) 200만원, 김차유복(불교대학원) 100만원, 김이상권(행정대학원) 100만원, 김경실(불교대학원) 100만원, 김홍종표(행정대학원) 300만원, 김김경자(불교대학원) 50만원, 김김구희(행정대학원) 100만원, 김김복출(경영대학원) 100만원, 김홍희표(동문) 10만원, 김현계(동문) 20만원, 김상순철(경영대학원) 300만원, 김김정준(경영대학원) 100만원, 김김형기(경영대학원) 100만원, 김한상봉(경영대학원) 30만원, 김박재원(경영대학원) 20만원, 김박삼규(동문) 100만원, 김안병민(동문) 10만원, 김홍순호(경영대학원) 100만원, 김한영휘(동문) 100만원, 김서미원(경영대학원) 50만원, 김이희자(경영대학원) 50만원, 김위재춘(동문) 10만원, 김서규하(동문) 100만원, 김장정호(경영대학원) 50만원, 김김재수(경영대학원) 50만원, 김김종안(불교대학원) 100만원, 김하과자(불교대학원) 100만원, 김이성환(동문) 100만원, 김윤만길(경영대학원) 100만원, 김노병섭(동문) 10만원, 김변재걸(경영대학원) 30만원, 김정민철(경영대학원) 30만원, 김(주)한국에프엘(동문) 100만원, 김전호은(불교대학원) 50만원, 김이건수(경영대학원) 50만원, 김김종만(불교대학원) 50만원, 김하과자(불교대학원) 100만원, 김순준규(사회학과 교수) 100만원, 김선상규(학생과장) 100만원, 김스게: 9천20만원(106명), 김누계: 4억7천6백32만7천9백50원(648명)

체신부 전산기기 지원
경주배치시 행정·연구활용

본교는 체신부 주관 아래 금성사로 부터 추진신기기 전산기기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국산 추진신기기 개발 보급을 위해 기획된 이번 대학 전산기기 지원에는 금성, 현대, 대우, 삼성등 4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성균관대, 인하대등 전국 10개 대학이 지원을 받게 된다. 본교의 경우 금성사의 추진신기기 타이콤(TICOM)을 비롯하여 레이저 프린터 2대, 386급 PC 20대등 시가 3억원 상당의 전산기기를 3월중에 설치할 예정이다.

행정업무나 연구활동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문대 출범식 경주캠퍼스 인문과학대 학생회(회장=오정기·철학)출범식이 오는 23일 오후 12시30분 녹아원에서 열린다. 주요행사자 △김길놀이 및 고사, △개회선포 겸 민중의례 △내빈소개 및 과학생회 소개 △회장 인사 및 집행부 소개, 정책약속 △인문대 교과위 발족(가안) 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출범식의 의의에 대해 인문대 학생회측은 "행사선전, 분행사등 다양한 기획으로 출범식을 구성해 모든 인문인들의 단합된 힘을 표출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 총여 열린교실 개최
초청강연·요리대회등 행사다양

경주캠퍼스는 제10대 총여학생회(회장=이윤영·회계4)는 제5회 열린교실행 출범식을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옥야실, 여학생 휴게실, 녹아원등에서 개최한다. △22일-신입생맞이 메이킹캠프가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이어 4시부터 이치원(중앙불교교육원)씨의 학술강연 '종교속의 진보적 여성관'이란 주제로 여학생휴게실에서 각각 진행된다. △23일-성교육주제 비디오편역이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옥야실에서, 제2회 열린 요리대회가 5시30분에 옥야실, 여학생휴게실에서 각각 마련된다. △24일-제10대 총여학생회 출범식이 오후1시 녹아원에서 있으며 문정희씨 초청강연회가 이어 열린다. 이번 제5회 열린 교실을 준비중인 이윤영총여학생회장은 "중대여성의교양위주의 행사구성에 벗어나 특히 신입생을 위해 성의 올바른 미정이다.

인식, 진보적 여성관 보급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기획취지를 밝혔다. 여학생부처 영화상영 여학생부처(부처장=박명화·가정교육학)에서는 여성의 삶의 본질을 보다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도 아래 오늘(16일)부터 6월8일까지 비디오를 상영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연회관(학생회관2층)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다음과 같다. 임정로는 1천원이 다. △은마는 오지 않는다(3/16) △성폭력, 그 사슬을 끊고(3/23) △피아노(3/30) △침묵에 대한 의문(4/6) △립스틱(4/13) △글레를 벗고서(4/20) △카미유클로델(4/27) △헨리메이(5/4) △여배우 프랜시스(5/11) △홍등(5/25) △미망인의 계절(6/1) △델마와 루이스(6/8)

석·박사 종합시험
동아리 가두모집

대학원(원장=전정원·무역학)에서는 94학년도 전기 석박사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원시접수는 오는 17~18일까지이며, 시험일은 석사 22~25일(학과별 자체시험), 박사25일이다. 대학원 외국어 시험 94학년도 전기 대학원 외국어 시험이 오는 25일부터 각 대학원별로 실시된다. 원시접수일과 시험일은 △불교대학원 21~23일, 28일(오후5시) △교육대학원 30~31일, 4월6일(오후8시) △정보산업대학원 21~23일, 25일(오후 6시30분)이며 장소는 아

직 미정이다. 동아리 가두모집 경주캠퍼스 제8대 동아리연합회(회장=심수민·중문4)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신입생 가두모집을 실시한다. 열린마당을 통하여 각 개별동아리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가두모집은 정등록 동아리 50개와 가등록 동아리 1개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동아리연합회측은 "가두모집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분과별 자리배정과 질서면에 신경을 썼다"며 "올해는 시작부터 신입생들의 호응이 좋으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형식적인 자료제출, 교수채용시 학생참여배제, 이해할수 없는 등록금 인상을 제시 심지어 88년 학자투에 의해 보직에서 물러난 모교수가 다시 보직에 오르는 등 보수회기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 학교당국의 태도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학생회의 모습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제 등록금 협상은 어찌됐든 정리됐고 이후 올한해 총학생회 사업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원된 학생회 체계의 강화를 통한 총학생회로의 집중력과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한 총학생회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남장학금 전달

외국어, 교육원(원장=용철원·영문학)에서 지난 11일 재남장학금을 영문과 학생 3명에게 전달했다. 성적이 우수하고 학비조달이 어려운 영문과 4학년 재학생에게 전달되는 재남장학금은 87년에 영문과 교수직을 퇴임한 김재남교수가 퇴직금을 학교로 환원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재남장학금은 87년부터 1년에 1회 50만원씩 지급됐다.

FODE 장학생 선발

경제학 연구회(FODE)장학금 수여식이 오늘(16일) 경상대 학생실에서 진행됐다. 이 장학금은 졸업생이 장학회를 조직,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에게 매 학기당 2명선정하여 약40만원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학전무대

재단과 등록금 O...기광! 동국학술문화관, 드디어...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학우들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는 않은 모양. 그도 그럴것이 그동안 전설가계제제이니 시설살비비니 하는 것들이 모두 학우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것이니, 이런 탐탁치 않은 눈길도 수긍할만 하다고. 이에 한 학우는 "재단 전입금과 등록금 인상간의 합수관계를 잘 이해한다면 동국학술문화관이라는 답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것"이라며 한 마디. 슬푸는 밤 O...때는 바야흐로 신학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전공은 재철을 만나 듯 환락가(?)를 형성한다는데. "후배는 주당, 선배는 들쭉"을 의미며 환영의 표시로 슬푸기를 하며 긴긴 꽃샘의 밤을 보내기에 선후배의 한마당이 된다고. 온밤골에 발을 들인 한달도 채 안되는 새내기들이 강의실 보다 심검동 숲집찾기에 더 늘어난 통찰력을 보이는 세대에 본 회전무대야 말 "후배에게 사랑받고픈 선배라면 보다 효율적인 컨닝 노하우를 전수 하심은 차라리 어쩔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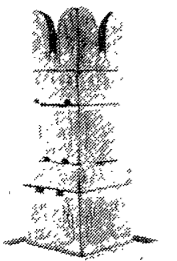
전화기를 찾아서

O...온밤골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우들이 전화를 하기 위해 수많은 발정음을 옮겨야 한다는. 이유인즉 도서관 1층 공중전화3대와 정작 학우들이 많은 4층 열람실에는 1대 밖에 전화기가 없어, 그것도 모두 카드전화라 카드가 없는 학우들은 동전전화기를 찾아 도서관을 나오기까지 해야 한다고. 이에 한 학우 "세계 8위의 통신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전화 한통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야 되겠어요"라고 일침. 시골정터(?) O...눈에 넣어도 안아플 새내기들을 맞이하기 위해 온밤골은 선배님들의 앙증맞은(?) 홍보활동으로 시골정터를 연상케 하는데. 지난 14일부터 일제히 시작된 동아리팀 각 기구들의 새내기 가두모집으로 신입생들은 원서만 가득 들고 어쩔줄 몰라하는 모습. 이에 회전무대자 한마디 "한번의 선택을 위해 한번의 단념이 있어야하지 않음지..."

Modern advertisement for Daewoo Group. Features large characters '囊中之錐' (Needle in the Bag) and '現代自動車' (Modern Automobile). Text includes '93년 163개국에 280만대수출' (Exported 280 million units to 163 countries in '93), '현대 해외에서 친밀도 1위' (Modern's popularity abroad is #1), '매출액대비 公益부문투자 現代그룹 1위' (Modern Group #1 in public sector investment relative to sales), and '現代法人稅 6개사로最多' (6 Daewoo legal entities, most in the industry). A large image of a car is shown.

동국기네스

3 보협인석탑



지정번호: 국보 제209호
크기: 높이 190cm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박달리

이 석탑은 우리가 흔히 보는 3층탑, 5층탑 등의 중층탑과는 모양이 크게 다르다. 전체 모양이 방형을 이루고 있는 상륜부 또한 특이하다. 이러한 모습의 탑을 보협인탑이라고 하는데, 보협인탑이란 명칭은 중국 오대 왕의 왕 전종숙이 팔만사천탑을 만들때 그 속에 일체 팔만사천보협인사리보협인다라니경(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을 넣어 보급한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 탑은 원래 충남 천원군 대평리의 한 절터에서 전래된 것인데, 탑이 무너져서 각 부재가 마을 곳곳에 흩어져 방치되어 있던 것을 수습하여 복원한 것이다. 현재 가장 아래에 있는 탑신에는 표면에 연화대좌에서 선정의 자세로 앉아 있는 2구의 불상이 부조되어 있다. 그 위에 연꽃무늬를 돌린 대석이 있고 다시 그 위에 역시 방형의 탑신이 있는데, 이 탑신 4면에는 부처님의 전생설화본 생담이 새겨져 있다.

조각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국내 유일의 보협인석탑으로 귀중한 유물이다.

박도화 (본교 박물관 연구원)

〈연극평〉 '젊은이들의 죽음'

한가족 삼통해 절망의 뿌리에서 희망찾기 시도

샘 셰퍼드 원작, 진남수 연출의 '젊은이들의 죽음'은 연.영과 4학년의 동계 Workshop작품으로 현대 미국사회에서 가장 낮은 삶을 살고 있는 한 가족을 통해 이 절망의 뿌리에서 희망찾기를 시도한다. 이 극은 미국지에도 나와있지 않은 시골에서 대를 이어내려온 가난과 무기력함으로 생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늘 일생에서의 탈출을 시도하지만 번번히 실패하는 웨스턴과 그 가족의 이야기이다. 웨스턴은 애정과 신뢰가 부재한 가정의 무능력한 폭군이었던 그에게는 늘 따뜻한 힘이 배어있다.

술집에 유일한 재산인 집을 아무 쓸모없는 사막의 땅과 바꿔버린 그의 아내 엘라는 병소와 체념으로 가족의 소외를 더욱 깊게 하는데 집을 팔아 새로운 곳으로 떠날 꿈을 꾸다. 역시 무력하고 배운것 없는 아들 웨슬리는 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엔 아버지를 뺏아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절망한다. 극을 가장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딸 엘마. 매우 열리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이제 막 어른이 되려는 소녀다. 아버지와는 본능적 친화력으로 닿아 있으며 자신에게 무관심한 가족, 특히 엄마에게 당당하게 인정받으려 노력한다.

이들에겐 이해와 부끄러움이 없으며 악을 써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이것은 가족관계 버리고 있는 벽과같은 단절감을 깨뜨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필사적인 외침이다.

따라서 자신의 내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대상은 기르는 양뿐이다. 한편 극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피'는 무대에 생기를 주는 원천이며 동시에 상인이 되려는 엘마, 그들 가족의 혈관을 유행하는 저주, 가족의 해체로서의 양의 죽음, 웨슬

리의 저항에 대한 죄책의 상징으로 작용한다.

극을 이끄는 또 하나의 도구는 방정고인데 그들은 늘 방정고를 열고 닫는다. 이 행위는 허기진 기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가족이 채워주지 못하는 애정을 채우려는 욕구의 다른 표현이다.

한편, 미국사회의 배후를 이루는 세계의 축-폭력집단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경제-정치집단으로 슬집주인, 시기꾼 부동산 업자, 소시민적 경멸이 등장, 술에 취해떨어진 웨스턴을 사이에 두고 집을 뺏기위한 난잡한 싸움을 벌인다.

이것은 가족문제 이전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보여주는 것인데 작가는 베트남전을 통해 미국의 허상을 깨고 그 실체를 직각한 전후세대다. 그는 해체되어 가는 가정과 그 구성원들의 소외와 분열에 세심한 눈길을 주고 있으며 전통적인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소도구, 역동적인 실험적 연기를 강조한다. 실제로 이 극에서 등장한 죽은 양과 직접 소변을 보는 행위들은 관객에게 충격과 사실성을 제공한다.

김영란 (대학원 연극과 석사과정)



영화속의 여성묘사와 페미니즘의 논의는 현재 어느 지점까지 왔는가. 영국의 쉐리 포터 감독이 만든 '올란도'는 대중 상업영화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고차원의 페미니즘 가설을 입증시킨다. 원래 버지니아 울프의 환상적 이야기였던 원작을 영화적인 감성과 현대적 해석으로 예술의 어떤 경지까지 승화시켰다. 1천6백년대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의 남자 올란도경이 늙지 않고

영화의 패러독스

셀리포터 감독 '올란도' 상업적 페미니즘 탈피

4백여년을 살면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이 전환되는 등 이 영화의 이야기는 황당무계하다. 하지만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의 이면에는 이야기의 논리와 그 형식까지를 뒤집는 전복적인 이야기의 논리와 그 형식까지를 뒤집는 전복적인 장치성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페미니즘 영화평론가들이 그동안 주목해온 것은 영화의 형식 자체가 남성의 패권을 조종해 왔다는 점과 그런 과정에서 여성의 시선은 의면되고 여성의 모습은 왜곡되어져 왔다는 것이다.

셀리 포터의 '올란도'는 바로 그러한 영화의 지배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격으로 시작한다. 단지 한 여성의 시선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성-남성을 수평적으로 동등하게 위

치시키겠다는 게 우선 전제된다. 남성이었을 때의 올란도는 남성의 시선을 가지며 여성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 가치관은 곧 전복되어 올란도는 여성의 시각에서 남성을 바라본다. 1천6백년대 가부장적 관념이 지배하던 시대의 남성 올란도가 현대의 여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 이 영화는 남성-여성이 벌이는 욕망의 게임과 사회의 변화를 같이 있게 만든다. 어느 한 장면, 하나의 고정된 가치관에 머물수 없게끔 이 영화의 수법은 브레히트를 차용하고 있다. 카메라의 시선은 되돌아 봄으로써 영화적 장치를 드러내는 "낯설게 하기"라든가, 이야기를 객관화시키고 정리해내는 지적인 자막, 시, 노래 등의 논평은 종래의 영화보던 우리의 수동적인 자세를 교정시킨



다. 성의 역할 전환과 양성의 가치가 주는 교훈성은 여성-남성이 인간적으로 같은 모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가설을 설명해준다. 죽음의 장에서 시작하는 영화는 탄생의 장으로 끝맺는다. 쉐리 포터는 이 영화를 통해 여성운동의 진정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함을 일컫는다.

정재형 (예대대 연영과교수 영화평론가)

◇'한겨레 21 창간기념 대공연'에 다녀와서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한마당

부산, 울산, 광주에 이어 지난 10일 오후7시 대구체육관에서 공연된 '한겨레21 창간기념대공연'은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수많은 관객들이 모여든 가운데 진행됐다.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창간을 알리기 위한 이번 공연은 어제와 일제의 만남 즉 '94국악의 해를 맞아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번 공연의 기획을 맡은 한겨레 신문사의 이병 (기획부차장)씨는 "과거와현재를 잇고 미래를 개척하려는 '한겨레21'의 의지를 담기위해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한 마당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기획의 뜻을 설명한다.

예전의 T.V에서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김수철씨가 함께 공연한 모습은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환상적인 느낌을 받았어요"라고 말한 대구시 평리동에서 온 한 남학생은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하 노찾사)의 협연을 보기 위해 이번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다고



1. 2부로 나뉘어진 이번 공연은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노찾사의 열띤 마당과 유익중, 임지훈, 신형원씨들의 어울림마당으로 진행됐다. 시계바늘이 오후7시를 약간 지나 갈때쯤 체육관의 모든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공연은 시작되었다. 펑과리, 북, 장구, 징등의 신명나는

협연이 관객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다.

이번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창작한 '우리나라'는 백범 김구선생님의 시를 인용, 타령조인 굿거리 장단에 맞춰 창작한 곡이라고

열림마당이 끝난후 무대뒷편에 만난 사물놀이패 김덕수씨는 가쁜 숨을 내쉬며 "우리음악이 곧 대중음악이 아닐까"라며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한다. 이어서 진행된 어울림마당에서 유익중, 임지훈, 신형원씨들이 '늙은 군인의 노래' '버들'을 불러 서정적인 무대를 장식했다. 어제의 전통음악이 오늘의 대중음악과 만나 새롭게 살아 숨쉬는듯한 출연진과 관객들의 뒀뒀이 한마당은 끊임없이 이어져 갔다. (김태성 기자)

메아리

학원안정화 대책

당했다. 지금은 계란과 밀가루를 뒤집어 썼던 정원식씨도 극무충리가 아닐뿐더러 독재, 폭력정권의 우두머리로 불리우던 노래우씨도 권좌에서 내려온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시대를 문민시대라 부른다. 그럼에도 그 시대의 통치방식으로 학생을 제적시키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물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당신은 공부를 못하니 학교를 그만두시오'라는 논리로 아니 '당신이 공부 못하는 이유가 학생회 활동 때문이니 당신은 좀 학교를 떠나주시오'라는 논리로 학생을 제적시키는 제도는 과연 교육적 논리로 얼마나 타당성을 가질지 의심스럽다. ▲학생은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에 진학한다. 이러한 학생을 단 3학기의 성적만으로 학교에서 내쫓는것이 바로 학원 안정화대책이다. 과연 학생을 학교밖으로 내모는 것이 당시 학생들의 손에 의해 교문밖으로 밀려났던 정원식씨가 가졌던 복수심이였을까. 그것이 정원식씨의 복수심에서 나온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당시 정권의 불합리한 원칙과 사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학원안정화대책은 의의 없어야 마땅할 것이다. (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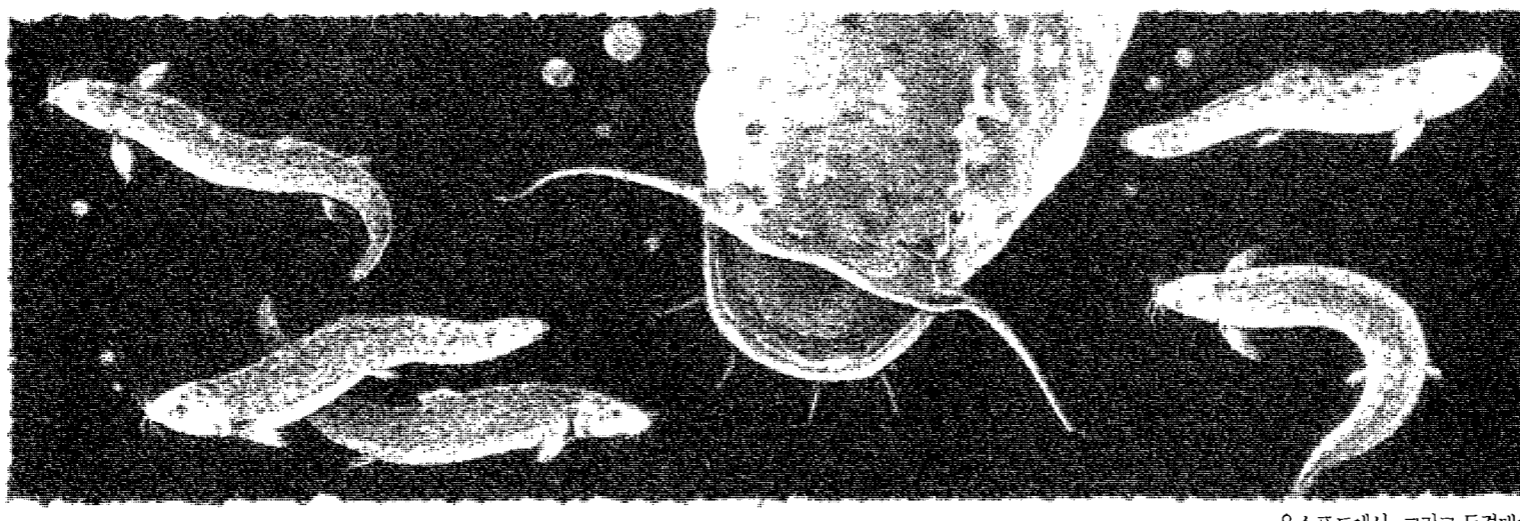


최경인 (40)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메기論 적절한 자극과 건전한 위기의식 - 변화와 자기발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미꾸라지만 키웠을 때와 메기와 미꾸라지를 함께 키웠을 때를 비교해 보면 - 놀랍게도 메기와 함께 자란 쪽의 미꾸라지가 훨씬 더 통통하게 살이 쪼여있었다고 합니다. 메기의 자극, 미꾸라지의 위기의식 - 이것이 미꾸라지를 더욱 튼튼하게 변화시켜 주었던 것이죠. 젊음에도 항상 적절한 자극과 건전한 위기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과 경쟁에 뒤지지 않을 힘을 키르기 위해서는 -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메기' 한 마리를 길러보세요.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고 자기 발전을 가져다 줄 메기 - 가령 나태해지려는 자신을 다잡아 줄 수 있는 자기자신인 메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내일을 밝히고 있는 가까운 친구, 허버드에서, 옥스포드에서, 그리고 동경대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세계의 젊은이들... 이 모두가 여러분에게 건전한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자기 발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삼성은 건전한 위기의식으로 과감한 자기변신을 추구하는 젊은 지성과 만나고 싶습니다.

